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6월 2일)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태고종 총무원은 7월 12일 양주 청련사에서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사 이운 의식을 통해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 왼쪽)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사진 오른쪽)이 법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대승교화종단 이룩해 태고종 중흥 이끌겠다"

태고종,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 봉행

7월 12일 청련사서… 2000명 운집
상진 스님 취임사서 공약 이행 약속
"최고 불교문화종단으로 나아갈 것"
호명 스님 "집행부 적극 협조" 당부
윤 대통령 축전 "태고종 발전 기대"
여야 대표 등 정계인사 축사 이어져

양주 ·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의 종조이신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으로서 한국불교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수호하며 본종의 정통성과 전통성의 위상과 가치를 굳건히 확립해 종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으로서 태고종의 위상 강화와 확립.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이 내놓은 취임 일성이다. 이 일성에는 태고종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종단으로 태고종을 발전시키겠다는 상진 스님의 의지가 담겼다.

태고종 총무원은 7월 12일 양주 청련사 대적광전 일원에서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이 ·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스님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등 태고종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조계종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지도자와 경기북부사암연합회장 초격 스님(봉선사 주지) 등 지역 불교계 인사,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도광 스님은 법어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28대 집행부를 기틀 삼아 종단 발전에 나설 것을 태고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도광 스님은 "태고종도는 밝은 선교방편으로 대중을 섭수하고 불조의 혜명을 전승함에 새로운 집행부를 기틀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발걸음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사현정의 길목에서 책임자의 소임이 그렇게나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음"을 이임사를 통해 술회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호명 스님은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위해 힘껏 협조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중들도 발전하는 태고종에 힘과 원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28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상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 당시 밝힌 공약인 △문화사업단 설치 △지방교구 자율 운영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재정 확립 등을 이행해 태고종 중흥의 기틀을 다질 것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종도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종심과 공심으로 종단의 중흥 발전을 위해 총무원장 출사표를 던질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책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나아가 불교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 종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태고종 전 종도는 '대승교화종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불은(佛恩)을 갚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부디 종단 중흥과 발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대원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상진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은 종단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전통불교문화 복원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상진 스님의 원력과 소신이 종단 화합과 불교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웃종단 지도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상진 스님의 원력으로 태고종이 대승교화종단으로서 불법 홍포와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의 용상대덕 스님, 300만 종도께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회의 중심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기도와 정진으로 보듬고 위로해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교의 전통의례를 그대로 전승해온 태고종은 문화적으로 국민을 한마음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태고종의 중흥과 발전을 기원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태고종의 도약과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축하했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기원했다.

이 · 취임법회 이후 상진 스님은 탑전으로 나아가 종도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소통 행보를 펼쳤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종문에 들어온 이후 오늘처럼 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 없었다"면서 "저는 오늘 법회를 통해 태고종의 가능성을 봤다. 이를 보여주신 종도들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밭에 새기라고 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종도들이 보여주신 은혜를 마음 속에 새기며 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27일 제28대 총무원장 공식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은 지난 4월 18일 열렸던 선거에서 62.1%라는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수봉당 상진 스님은

태고종단 교육 · 행정직 두루 역임 '실무형 리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수봉당 상진 스님〈사진〉은 종단의 주요 교육 및 행정직을 두루 역임한 '실무형 리더'로 평가된다.

1991년 태고종 중앙금강계단 태고사에서 철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상진 스님은 1994년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종단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장과 한국불교법사대학 교수, 보우승가대학 교수,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등 여러 교육직을 역임하며, 태고종 승가교육을 이끌었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과 제13 · 14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 종단 행정 · 입법부에서 쉼 없이 활동했다.

청련사를 서울 왕십리에서 경기 양주 장흥면으로 이전하며 사격을 일신시킨 상진 스님은 양주불교사암연합회 제7대 회장과 양주경찰서 경승실장을 역임하며 지역불교 발전과 양주 지역 포교에도 힘썼다.

어장인 상진 스님은 전통불교문화 전승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이사장으로서 예수시왕생칠재를 복원해 전승하고 있다. 양주 청련사의 예수시왕생칠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상진 스님은 2000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 공연에 출연해 한국불교의례를 세계에 선보였으며 미국 LA슈라인극장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위령 영산대재(2016)', 캄보디아 시엠립 로얄 국립공원에서 봉행된 '제2회 킬링필드 희생자 위령합동천도 영산대재(2017)' 등을 총괄 기획하고 어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진우 스님, 영국사지 '佛-儒 상생' 물꼬 트다

10일 오언석 도봉구청장 만남서
사지 상생활용 방안 긍정 화답
조계종, 지자체 등 실무협 운영
"불교-유교 상생성지 협력할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0일 도봉구청을 방문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영국사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오 구청장에게 영국사지 현장서 현황을 듣는 모습.

지난 2012년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보물급 불교의식구들과 고려 고승 비편이 발견돼 서원 이전에 사찰임이 밝혀진 영국사지가 불교-유교 상생 성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0일 도봉구청(구청장 오언석)을 방문해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영국사지(도봉서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면담을 하며 영국사지를 불교와 유교가 상생·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오 구청장과의 면담 이후 동행한 기획실장 성화·문화부장 탄원 스님과 함께 영국사지(도봉서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영국사지(도봉서원)의 존재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2011~2012) 과정에서 해당 구역이 영국사의 옛터임을 증명하는 성보가 발견됨에 따라 처음 알려졌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해당 사역에 대한 추가 발굴을 실시해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 의 명문이 기록된 고려 초기 고승 혜거 국사(899~974)의 비석 파편을 발견하고, 이에 도봉서원이 고려 영국사 터에 건립된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국사 및 도봉서원 터를 두고 불교와 유교 간 활용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사)도봉서원은 줄곧 사당이 있던 원래 자리에 서원의 중건을 바랐고, 조계종은 보물이 대거 발견된 유교의 사당자리, 즉 대웅전 터를 원형 보존하기를 제안했다.

조계종과 (사)도봉서원의 이견으로 11년간 표류하던 영국사 및 도봉서원 터의 활용은 진우 스님의 방문으로 물꼬를 텄다. 이날 진우 스님은 오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불교의 역사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면서 "영국사지가 불교와 유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영국사 및 도봉서원 터가 불교와 유교 간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영국사와 도봉서원 터 활용에 어느 한쪽도 소홀함 없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계종, (사)도봉서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봉구는 영국사지(도봉서원)의 활용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조계종, (사)도봉서원, 서울시, 도봉구가 협력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협약을 실시하고, 불교와 유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 대해 조계종은 "고려 혜거 국사의 주석처이자 서울의 유일한 서원 터이기도 한 영국사지(도봉서원)가 불교, 유교의 역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도봉구 등 해당 기관의 상생 가능한 대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종단 역시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찰 전기료 지원, 전통사찰 확대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여당 의원들 예방서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환담에서 문화재 보유 사찰에 해당되는 현행 사찰 전기료 지원사업을 전통사찰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의원,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사업부장 주혜 스님, 사서실장 서봉 스님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사찰 전기료 지원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일부 사찰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문화재와 동일하게 국가가 지정하는 전통사찰 역시 공익적 가치와 목적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당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감의 뜻을 표하며 "관련된 사안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호섭 기자

봉선사, 종단 불사에 1억 원 희사

7월 11일, 천년을세우다·승려복지 기금으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하는 불사 '천년을세우다' 와 승려복지기금으로 총 1억 원을 희사했다.〈사진〉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과 부주지 도일 스님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총무국장 혜복 스님과 김남명 교구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신도회장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고 명상을 보급하기 위한 센터 건립 등 불교중흥의 밑거름이 되는 불사에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초격 스님은 "조실 월운 스님 영결식 때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각지의 어르신들께서 다녀가주셔서 더 없이 감사하다"며 "평소 조실 스님께서 강조하신 청소년 인재양성과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 본사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정비 인사 단행

연수원장 우하 스님·본부장 인월 스님 임명


연수원장 우하 스님


본부장 인월 스님

조계종이 운영하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원장에 총무원 재무부장인 우하 스님이 임명됐다. 재무부장이 연수원장을 겸직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연수원 정비를 위한 총무원 차원의 포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하 스님에게 한국문화연수원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연수원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종단 주요 소임자인 재무부장을 연수원장으로 임명하게 됐다"며 "겸직이지만 연수원에 자주 방문해 현황을 살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하 스님은 "관련한 내용을 잘 살펴 연수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총무원 홍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인월 스님을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 기획실에서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회향해달라"며 "연수원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도록 제반여건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인월 스님은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종단에 보탬이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하 스님은 법영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사미니계)했다. 윤필암 사불선원, 대성암선원, 불영사 천축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금강사 주지와 총무원 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화성 항하사와 봉원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을 맡고 있다.

인월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호국기룡사 주지, 해원사 주지, 대만 홍법원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새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현준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7월 12일 지정증서 수여


덕림 스님


현준 스님

범패와 의례 등에서 높은 성취를 이뤄야 자격이 주어지는 어산종장에 비구 덕림 스님과 비구니 현준 스님이 새로 지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림 스님과 현준 스님에게 어산종장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어산종장은 어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후학을 잘 가르치고 전통이 여법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성불을 위해 분별심을 없애고, 그 전에 번뇌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염불은 한편으로 명상이기도 하다"며 "어산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어산종장으로 지정된 두 스님은 "어산 분야가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덕림 스님은 불산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사미계)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수도암선원, 운부암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오도암 주지를 역임했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범패의 수행원리와 활용방안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현준 스님은 선재 스님을 은사로 1974년 수계(사미니계)했다. 1999년부터 행자교육원 교수사 및 운영위원, 조계종 제32·33·39회 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 강남구 구룡사에 있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교수사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전국여성불자들 보금자리 마련

조계종 여성불자회, 조계사 맞은편 사무실 개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7월 12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한국불교 대표 조직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사진〉

사무실은 서울 조계사 맞은 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옆 대광빌딩(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8)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회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사무국 공간으로 꾸며졌다. 조계종 총무원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뿐 아니라 여성불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개소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앞으로 단체의 발전을 치하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2022년 6월 23일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21개 교구, 직능분야 회원 1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임은호 기자



“동남아국가들, 한국불교가 도왔으면”

법륜 스님, 동남아 중심 11개국 순방 기자간담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4~5월 두 달간 베트남부터 태국 · 인도 · 부탄 등 방문
각국 경제적 취약지역 살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파”

불교 국교로 입지 굳힌 곳 교단들 종교 위기의식 낮아
신자들 신앙·삶 연계 안 돼
“사상적 지원 필요성 느껴”



대규모 홍수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법륜 스님. 사진제공=JTS

“외국에서 정토회가 궁금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와 한동안 같이 지내며 정토회를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뭐가 필요한지 정작 제가 모르더군요.”

지난 4~5월 두 달에 걸쳐 동남아를 중심으로 세계 11개국을 순방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스님의 순방 목적은 단순하면서도 뚜렷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 실천불교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정토회지만 그 대상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님의 걸음을 옮기게 했다.

이 같은 순방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토회는 7월 13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 10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실무진이 1시간 동안 각국에서의 활동을 소개한 뒤 법륜 스님은 “불교가 중심인 동남아국가들을 한국불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정토회에 따르면 법륜 스님은 각국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태국에선 30여 년 전 미얀마 국경과 맞닿은 지역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담마누락재단 고아원을 찾았다.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스리랑카에선 영국 식민지 시절 남인도에서 강제 이주해온 타밀족이 많은 빈곤 지역 우바주를 방문했다. 인도에선 국립공원 건립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데카바스티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스님은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JTS의 지원도 연계했다. 교육이 부족한 곳엔 학교 건물 건립을 돕거나 학용품을 지원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먹을 것을 전달했다. 대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홍수로 수재민만 3300만 명이 발생한 파키스탄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종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법륜 스님은 “튀르키예 · 시리아에서 한국불교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단체가 더 늘어나고 재정규모도 확대된다면 더 없이 좋겠다”면서 “동남아 불교국가의 어려운 지역을 서양이나 기독교보다는 우리 손으로 돕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경제발전은 뒤처지지만 법륜 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동남아국가들의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특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는 향후 10년 안에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정치 · 외교적으로 강대국 중심 교류를 이어가는 한국에서 불교계가 민간차원으로 중견국과의 협력을 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법륜 스님은 동남아국가들의 교단이 전통불교를 고집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종교적 위기의식이 떨어진다고 봤다. 사회변화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지만 개인신앙인 불교와는 전혀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리적으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운명론적인 해석을 하는 교단도 있었다. 근본교리에 밝은 줄로 알았던 상좌부불교 테라바다가 그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이들의 활동은 불교에 기반을 둔 게 아닌 사회요구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개인신앙과 사회활동이 따로 분리되면서 교리적인 혼란도 적지 않았다. 죽원을 하고 재를 지내는, 불교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알 뿐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법륜 스님은 “그동안 정토회는 서양 중심으로 전법을 해왔다. 불교국가는 그곳만의 문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교리적인 교류는 지양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사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술회했다.

스님은 이어 “교리에는 지식만 있지 인격이 없다. 또 부처님 일생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해해야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실천이 나올 수 있다”면서 “여성,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정토회 행보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꼽았다. 우선 베트남상가협회와 협력해 국내 베트남 결혼가정과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법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안산시에 있는 JTS 다문화센터만으로는 국내 수많은 다문화가정을 다 도울 수가 없다”며 “대형사찰과 주요 종단, 여러 단체들이 합심해 지원을 늘려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영양가득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불교계 복지관들, 초복맞아
기업체 손잡고 지역사회에
닭곰탕 등 특별보양식 제공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11일, 종로구 어르신에게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반계탕 600그릇을 제공했다.

무더위 속 장마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가 지역사회 이웃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염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13일 서울 탑골공원 앞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에서 ‘초복맞이 자비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갖고 어르신 300명에게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대접했다. 이날 보양식은 닭곰탕과 과일샐러드로,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이 직접 나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해 의미를 더했다. 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 10여 명도 동참, 무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닭곰탕 300인분을 준비했다.

보인 스님은 “잘 먹는 것이 보약”이라면서 “어르신들이 복지재단에서 준비한 닭곰탕으로 입맛을 찾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은 나눔 행사와 더불어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자 하는 불교사회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문화의 중심 1번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11일 관내 1층 경로식당에서 종로구 지역 어르신을 초청, 보양식을 대접하는 ‘초복맞이 어르신 무료식사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광화문One팀 봉사단’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무더위와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후원금 1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반계탕 600그릇이 제공됐으며 이 밖에도 더위를 물리칠 찹쌀밥과 화채, 오이무침 등이 곁들어졌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광화문One팀 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보양식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도 7월 11일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을 실시했다.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의 후원으로 1000인분의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배식할 수 있었다. 팬오션은 오랜 기간 센터와의 인연으로 한가위맞이 효실천, 노인의날 맞이 특식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팬오션과 오랜만에 다시 대면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봉은사–장성군, 지역경제 살린다

7월 7일, 도 · 농상생 협력 MOU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장성군(군수 김한종)과 손잡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봉은사는 7월 7일 경내 구생원에서 장선군과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봉은사와 장성군이 도농상생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 정립과 소통 및 교류를 정례화함으로써 역사 · 문화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추천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봉은사의 역사 문화 및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협력하며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봉은사는 △도농 상생교류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성군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구매와 홍보△새로운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적극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봉은사는 장성군 특산물인 감과 복숭아, 쌀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지역경제를 돕는 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신도들에게 값 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먹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 구조상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농민도 이용자도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오늘 협약은 장성군에서 쌀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유서깊고 신도 많은 서울 봉은사와 협약으로 모두가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부처님 가르침 영화로 만난다

2023 세계일화불교영화제, 8월 17~20일 서울 대한극장서 개최
'Re:Sonance' 주제 28개국 60편 상영…10~11월 지역 상영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17일~20일 서울 동국대와 대한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폐막작 〈불효자〉의 한 장면.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집행위원장 차승재)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일간 서울 동국대와 대한극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 주최하며 동국대학교가 주관하는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증명으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2023년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Re:Sonance-불교의 울림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슬로건으로 28개국 6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Re:Sonance'는 불교의 울림으로 세상과 공명하는 올해 영화제의 지향점을 반영한다. 사랑, 평화, 중용 등 불교적 가치 실천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영상을 매개로 불교적 가치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겠다는 의미를 지녔다.

〈Buddhist Lens〉〈World Cinema〉〈Shorts Collections〉〈동국 쇼케이스와 OOTT Showcase〉 등 세션을 나눠 진행되며 단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 세계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8월 17일 서울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진 후야칭 감독의 영화 〈다크 레드 포레스트〉다. 〈다크 레드 포레스트〉는 척박한 티베트 환경 속에서 비구니들이 답을 찾기 위해 고난의 수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작품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희생해 도달하려는 궁극의 목적과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을 담았다.

8월 18~20일 3일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60여 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서는 각종 세계영화제 수상작이 대거 선보인다. 2021년 베니스영화제 인터필름 수상작 '아미라'와 2021년 나폴리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이 뽑은 최고의 장편영화로 선정된 '피스바이초콜렛'을 비롯해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 초청작 '견왕:이누오', 구담 스님이 연출한 국내 최초 무용극 영화 '불교진혼곡' 등은 특히 눈길을 끈다.

폐막식은 8월 20일 오후 6시 대한극장 7관에서 열리며 폐막작은 최진규 감독의 〈불효자〉다. 〈불효자〉는 출가한지 40년 만에 어머니와 여행을 준비하는 마가 스님을 다룬 다큐먼테리다.

영화제에서는 청소년 영화캠프를 포함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차승재 집행위원장은 7월 1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2회 영화제가 터를 닦는 행사였다면 올해는 잘 닦여진 도량에 기단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리는 시기"라면서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성장, 전법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젊은 불자들에게 관심을 당부하기도 한 차 집행위원장은 "청년 영화인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주윤식 조직위원장은 "영화제가 매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더 많은 관심 속에 불교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와 관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계일화국제영화제는 무료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선택, 상영 당일 현장에서 예매완료 SMS 확인 후 티켓을 교환하여 관람할 수 있다. 예매한 티켓 취소는 상영일 기준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한 회차당 1인 1매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예매 사항은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 8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oibf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11월에는 지역순회상영회도 개최한다. 강원과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등으로 나눠 영화제 상영작을 교구에서 상영, 지역 불자들도 불교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이다. 공식 포스터는 연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으며 분홍색을 사용하여 불교 문화의 정체성과 미학을 담고 있다.

지현 스님 "조계사가 큰 울타리 되겠다"

중림복지관 운영사찰로…현장 방문
직원들 만나 "우리는 한 가족" 강조
2028년 6월까지 5년간 운영지원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7월 12일, 운영지원하는 중림복지관을 찾아 시설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7월 1일부터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 이하 중림복지관) 운영 사찰로 지정된 가운데,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복지관을 찾아 시설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2년 개관한 중림복지관은 2020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해왔다. 2020~2023년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다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재단은 조계사를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했다. 조계사는 2028년 6월까지, 5년간 중림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7월 12일 오후 중림복지관을 찾은 지현 스님은 이운희 복지관장 안내로 기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을 비롯해 도서관과 행복나눔식당, 여가프로그램실, 하늘정원 등 복지관 곳곳을 둘러봤다.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뿐 아니라 시설 이용 회원들을 직접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조계사와 함께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라운딩 후에는 복지관 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현 스님은 "우리는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복지관 활동에 있어 조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운영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운희 관장은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하는 복지관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행복과 울림을 주는,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주민 동행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미션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 중구 15개 동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명동 등 서부권역 총 4개동을 관할한다. 일일 850여 명, 연 2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계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되면서 △민간기관으로서 주체성 있는 사업수행 △불교계 사회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예산활용 자율성 증대 △원활한 후원업무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은호 기자

문화사업단,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8월 31일까지 접수
관광기념품, 명상용품 등 다양

한국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관련 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차별성 있는 불교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사업단이 제공하는 불교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기념품, 공예품, 생활소품, 명상용품 등의 디자인하면 된다.

공모전은 총상금 1100만원 규모로 수상자를 선정되며, 10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템플스테이 홍보관에 전시된다. 접수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templestay.gcontest.co.kr)에서 출품상품 설명서와 공모작품 실물사진을 접수하면 된다. (02)6953-1994

신성민 기자

불교학·국학 진흥 위해 손 맞잡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국학진흥원과 업무협약
연구, 인력 양성 등 협력키로
정묵 스님 "시너지 효과 기대"



불교학과 국학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교류 협력키로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과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7월 12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국학 자료의 조사와 연구, 인력 양성과 교류와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과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 전임연구원 선암 스님, 박인석 기록문화팀장이 참석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정종섭 원장을 비롯해 오용원 국학미래본부장, 김형수 국학진흥본부장, 권진호 국학기반본부장, 김순석 수석연구원, 김송주 기획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학자료 조사 발굴 △국학자료 활용 및 연구 △국학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등을 진행키로 했다.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은 "종교의 사회 기여는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학과 불교학 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한국국학진흥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너지를 발휘하자"며 "이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조들이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빛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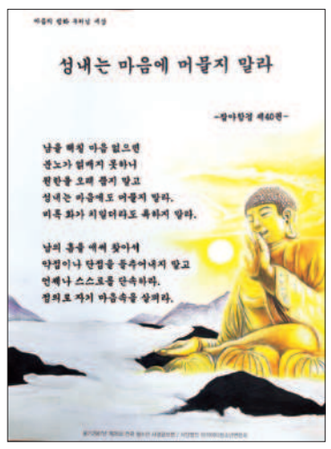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한국국학진흥원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지식유산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활용하는 것이 임무"라며 "한국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불교의 가치를 잘 연구해온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협약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책연구기관으로, 산하에 5개의 연구원(소)가 있다. 현재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 '인문한국(HK+) 연구사업' 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학원 과정인 한문불전번역학과와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및 불교한문 번역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한문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헌 1만 4484건을 조사하고, 39만 8232컷을 고화질 촬영하여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파라미타 사경 공모전 대상에 김형준 학생

포교원장 범해 스님, 7월 12일 시상
7월 21일까지 한국불교기념관 전시



대상 수상작인 김형준 보문고 2학년 학생의 작품.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파라미타)가 주최한 '제26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대상에 김형준 보문고 2학년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라미타는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파라미타 측에 따르면 이번 사경공모전에는 전국 약 2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그중 691점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6월 14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6일 특별상 3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4점, 특선 10점, 장려상 10점 외에 입선 30점 등 총 63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소현진(동대부여고), 조서연(청담중), 김린(은석초) 학생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신미송(청담고), 최서연(은석초) 학생이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사경은 신심을 돈우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라면서 "이번 사경 주제인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처럼 성안내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형준 학생은 "수상을 통해 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 진 거 같아"면서 "앞으로도 사경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26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들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2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경대회 심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김경호 사경장 전수장학생이며 前한국사경연구회장 행오 스님과 박경빈 한국사경연구회장,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실장 법정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이자 파라미타 사무총장 문종 스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파라미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동국대학교 후원으로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경기지역 불자들, 정혜사 화재피해 돕기

7월 7일, 목윤 스님에 900만 원
앞서 용주사도 5000만 원 전달


경기지역 청년불자들이 최근 화재로 전소된 수원 정혜사(주지 목윤)의 복구를 위해 기금 900여만 원을 전달했다.

대불련 경기지부 동문회 연향회와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동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7월 7일 정혜사를 찾아 주지 목윤 스님에게 화재복구기금을 전했다.〈사진〉

1985년 창건한 정혜사는 6월 21일 오전 8시 35분,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800여㎡ 규모의 3층 건물이 대부분 소실됐다. 다행히 법당을 비롯한 3층 건물이 전소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혜사는 현재 창고를 겸해 사용하던 아래쪽 건물에 임시로 사진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꾸며 놓은 상태다. 수원시의 협조로 임시 컨테이너 건물이 준비돼 스님들의 거처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는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등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대불청 경기지구(회장 김창규), 대불련 경기지부 동문회(회장 한경림), 동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회장 구정현)는 각각 단체별로 1차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1주일 동안 약 9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져 이날 전달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한경림 회장 등 동참자들은 "경기지역 청년불자들에게 정혜사는 대학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라면서 "2년 전 열반에 든 정화 스님은 청년학생들에 대한 포교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동남대 불교학생회에게는 정기법회 자리와 법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셨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정혜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국 동문들과 지역에 알려 빠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도 6월 28일 화재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7월 12일 개최된 제14차 전국지회장회에서 정혜사 화재 후원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키로 했다.

임은호 기자

이번 복날엔 채식 어때요?

불교환경연대, 말복까지 한 달간 채식 캠페인



불교환경연대가 초복 7월 11일부터 말복 8월 10일까지 한 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 '채식이 우리를 지킨다'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대는 지난달 전국의 녹색사찰 관련 포스터와 법문자료를 보내 캠페인을 안내했다.

환경연대에 따르면 녹색사찰 수안사는 지난 11일 초복에 맞춰 노인정과 어린이집, 노인보호사교육원 등 지역주민들과 팥죽을 나눴다.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은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능을 떨어지게 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팥죽을 초복 음식으로 택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 환경연대와 신대승네트워크 협력사업인 '수요밥상'에 참석하는 불교단체 활동가들도 오는 19일엔 채개장을, 8월 9일엔 들깨감자탕으로 채식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주 목요일인 7월 27일 환경연대가 참여한 불교기후행동 캠페인에 맞춰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복날 채식 거리 캠페인이 진행된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건강한 채식을 통해 복날에 몸과 마음을 챙기고 지구도 살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망막박리’로 실명 위기…“화가 꿈 잃고 싶지 않아요”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5. 이달의 환자–망막박리 앓는 여고생 예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 5월, 망막박리로 수술받을 당시 모습. 현재 월 1회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다.

미술 전공하는 17세 예지…지난 5월 수술 후 지속 검진 해야
매달 1회 전남서 서울로 검진…힘든 가정형편에 의료비 부담

여고생 예지(17세, 가명)의 무릎은 온통 멍으로 가득하다. 눈을 가린 보호대로 인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움직일 때마다 자주 부딪치고 넘어져 생긴 상처다.

딸의 멍든 무릎을 볼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매어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딸이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행여나 딸이 엄마의 눈물을 눈치를 챌까 싶어 마음을 추스르려 하지만 한번 흐른 눈물은 멈출지 모르고 흘러내린다.

예지는 지난 5월, 망막박리로 수술을 받았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 떨어져 들떠 있는 상태로,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다. 박리가 망막 중심부까지 진행되면 망막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시력 장애를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안구가 위축되며 실명하게 된다.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수다.

예지 역시 수술 직후에는 주 1회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점차 그 빈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최소 한 월 1회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진을 갈 때마다 최소 15만 원 이상씩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이 큰 것이 문제다. 특히 예지는 현재 전남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매달 검진을 다니고 있다. 안압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기에 매번 보호자와 지인이 동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교통비 지출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예지의 아버지는 이웃집 농사일을 돕는 단기 근로를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치 않다. 어머니는 결혼이민자로, 2005년 한국에 왔다. 한국말이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 가족 생계유지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는 예지가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환자 치료비 전달로 소정의 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검진은 예지의 가정에 걱정만을 남기고 있다.

예진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 성실한 학생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예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미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재주를 살려 예술고등학교에 진행했다. 그러나 진학과 함께 발병한 망막박리로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며 안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예지는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상태다.

예지의 부모님은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예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지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까지 얻게 되자 모든 것이 본인들의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예지가 진료를 잘 받고 시력을 회복해 예전처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화가의 꿈을 이뤄내길 기도할 뿐이다.

예지는 앞으로 최소 1년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만 100여만 원 이상 예상된다. 예지가 시련을 딛고 화가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자비온정이 절실하다.

안구 치료 계좌 농협 301-0138-0683-51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일면 대종사의 생명나눔 편지

환자 치료비 후원으로 동체대비 사상 실천

슬픔 나누는 건 공덕 쌓는 일
아름다운 인연 맺어가는 계기
치료비 지원, 사람 생명 살려

불볕더위와 함께 이어진 장마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할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기세등등한 여름을 즐기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빠르게 스쳐 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인연이 아닐까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계율이 담긴 ‘범망경’에서는 ‘옷깃 한 번 스치는 것도 500겁의 인연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인연을 외면하고 연을 끊는 일을 심심치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차갑게 뒤돌아서는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짓는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의 기쁨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친구와 같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측은해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평등한 마음입니다. 편견과 차별심을 없애고 모두를 사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가지 마음을 닦으며 착한 벗과 가까이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통해 좋은 인연을 맺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육체적 고통으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요,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슬픔을 더불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어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듯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희망이 되고, 당신의 나눔이 기적이 됩니다.

치료비 지원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 주세요.

환자 치료비 지원 참여방법
문의 : 02)734-8050
ARS후원 : 060-703-1133 (한 통화 5000원)
홈페이지 : www.lisa.or.kr
▶ 정기후원 시 CMS 자동이체 가능.
▶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손을 잡아 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02-734-8059 간편한 ARS 060-703-1133 (한 통화 5000원)
환자치료비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환자 후원금은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북 교구본사들, 北출신 동국인 지원

동화사 · 은해사 · 불국사 등 장학금 쾌척

동국대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포항 원법사 포함 4000만 원
서울·WISE캠퍼스 학생 24명
석굴암 등 경주 일원 탐방도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7월 11일 경주 코모도호텔 연회장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제44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건학위는 북한 출신 재학생 24명(서울캠퍼스 20명, WISE캠퍼스 4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동화사(9교구본사), 은해사(10교구본사), 불국사(11교구본사), 포항 원법사가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후원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불국사 종상 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문선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위원 등이 동참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개회사와 삼귀의로 시작해 내빈들의 축사와 답사로 이어졌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영상시청, 장학증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 후 장학생들은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은 감사편지를 통해 각자 현재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 장학금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향정 학생(간호학과)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며 "장학생 선발은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 장학금을 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빈들은 축사와 답사를 통해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취지에 공감하고 학생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국경을 넘고 이념을 넘어 동국대에 재학 중인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돼 뜻깊다"며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 학문적으로 더욱 정진하고 동국인이자 청년불자로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제44회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건학위 출범 이후 한 달에 평균 3~4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며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은 동국의 발전이며 불교 중흥의 씨앗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오늘의 기억이 따뜻한 마음의 추억과 힘으로 남아서 지지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불교종립 동국대는 2021년 4월 건학위원회를 출범하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찰과 함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 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의 장학금을 시작으로 44회를 맞았으며 장학금 모금액이 현재 약 6억 원, 장학생은 약 630여 명에 이른다.

한편 건학위는 7월 11~12일 북한 출신 재학생들을 위한 경주 주요 불교 문화재 탐방을 실시했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방문한 불국사에서는 이사장 돈관 스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천왕문부터 대웅전까지 설명하고 안내했으며,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불국사 교무국장 정수 스님은 다보탑과 석가탑 등 불국사 대표 전통문화재를 소개했으며 학생들은 불국사 일원을 돌아보며 전통불교문화재를 관람했다. 참여대중은 다음 날 방문한 석굴암에서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경주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를 탐방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태고종 부산종무원, 전통범패 학인모집

9월 5일, 부산 동래구 종무원 법당서 개강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종무원장 마나)이 한국불교 전통범패 의식을 교육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인을 모집한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은 9월 5일부터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전통범패 관련 강의를 개강한다. 개강식은 9월 5일 오후 2시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1년이다.

교육 내용은 조석예불에 필요한 종송과 향수해례, 사성례 등과 사시예불을 위한 거불성, 독경, 동음 등 예불을 위한 수업부터 시작한다. 이어 기본적인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제, 도량게 등을 배워 습의를 마무리한다. 천도의식과 수륙재, 점안의식을 비롯한 천수바라와 사다라니 바다, 요잡 등 바라의식 및 나비춤 수업도 이어진다.

강사는 지효 스님(남운정사 주지)이 맡았다. 지효 스님은 약 15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부터 각종 범음 범패에 이르기까지 전통의식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홍익 범패단에 입단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홍익 범패단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영산재 및 합동 위령재, 호국 추모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태고종 부산종무원은 "지효 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강의하고 안내하고자 한다"며 "많은 스님들이 전통 불교 의식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모든 강의는 기초부터 상세히 설명하고 수준별 깊이 있는 내용으로 수강생에게 세계문화유산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4466-3575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에 자리한 천태종 사찰을 탐방하며 다도체험 등 한국불교문화를 경험한 입양아 가족들.

입양아 가족에 한국전통문화 소개

나누며하나되기, 삼광사 및 광명사 등 천태종 사찰 방문

천태종 NGO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간 한인 입양아 가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탐방을 진행했다.

한국을 방문한 입양아 가족들은 10대와 20대 입양아와 가족으로 구성된 미국 미네소타팀 67명과 뉴욕팀 27명 등으로 두 차례에 나눠 탐방이 진행됐다. 입양아 가족들은 한국전쟁 73주년 현장을 보여주는 안보 관광지 파주 임진각과 용산 전쟁기념관,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을 방문했다. 특히 부산 삼광사와 광명사를 방문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알아보는 다도와 사찰음식, 연꽃등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박줄리아 세종문화교육원 원장은 "한국에서 지낸 10박 11일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의미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친모 상봉을 통해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신 천태종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나누며하나되기는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나라 사정과 가정 형편 등으로 우리 한국의 고아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입양을 한 지 60여 년이 흘렀다. 이 세월 동안 20여만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2023년에도 여전히 해외입양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뿌리와 정체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 세종문화교육원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중학교 파라미타 열암곡 마애불 참배

재학생 40여 명 동참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박명규)는 7월 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참배 및 경주문화 탐방'을 개최했다. 탐방은 학생들이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부처님 바로세우기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이석언 금정중 교법사를 비롯한 파라미타 교사들과 정재운 금정중 파라미타 회장, 한도윤 금정중 학생회장, 박광렬 부회장 등 재학생 40여 명이 동참했다.

금정중 파라미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경주 일대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불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삼독에 물든 마음을 돌아보며 미래와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짜 불사"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어산회 정통성 고찰

'범어사 어산집' 주제 워크숍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보유단체장 성림)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부산영산재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크숍은 무형문화재 원형 유지와 전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개최됐으며, 부산불교어산회의 정통성을 1700년대 목판한 범어사 어산집을 통해 고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불교어산회의 전통 및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자료는 정영진 교수(경성대)의 '어산집(漁山集)에 관한 고찰'을 읽고 발표했다. 발표는 성림 스님(부산영산재 범패 전수 조교 보유단체장)과 박재혁 前 정관박물관장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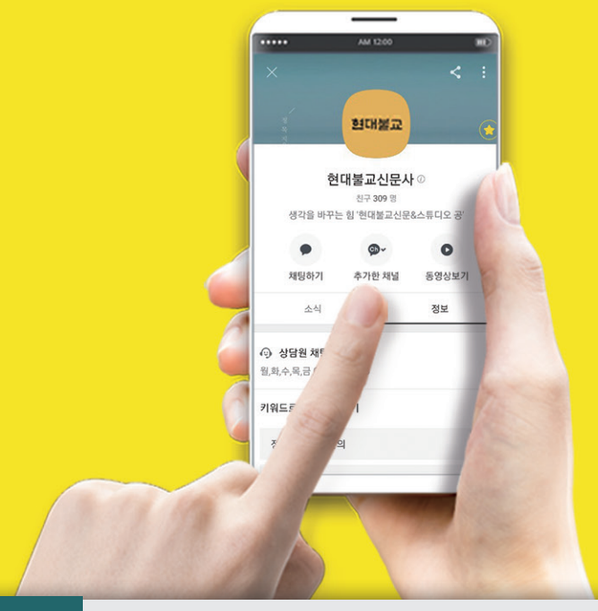
성림 스님은 "어산집에 관한 고찰 논문에 따르면 대휘화상(1725~1776)이 쓴 '범음종보'에 열거된 조선왕조 중기까지의 범패 계보에서 제9대인 혜감(惠鑑)에 이르러서 광사의 순영 등 많은 제자가 배출되어 경상 전라도의 사찰에 범패가 퍼져나갔다"며 "경산(京山) 중심의 윗녘소리와 대구 팔공산 이남의 영남제, 아랫녘소리가 있는데 팔공산제 중 통도사와 범어사의 범패가 두드러져 소위 통범소리라 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랫녘의 마지막 남아 있는 통범소리는 그 본거지를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에 두고 있고 그 맥을 부산불교어산회가 계승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어산회가 7월 5~6일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부산영산재 워크숍을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성림 스님은 "영남범패의 범음곡 35곡을 열심히 훈습해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전하는 구전심수(口傳心授)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K-명상 개발…명상 전법으로 불교 중흥"

호남 지역 포교사단, 진우 스님 초청 포살법회

7월 8일 담양 용흥사서 봉행
진우스님, 포교사들 수행 강조
"명상, 육바라밀 실천 나서야"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7월 8일 봉행된 호남 지역 포교사단 합동 하안거 포살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호남지역 포교사들의 포살법회에 참석해 명상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과 포교사의 개개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강윤구)과 전북지역단(단장 김용수)은 7월 8일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에서 '불기 2567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살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포교사들의 수행을 독려했다.

"포교일선에 있는 포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노고를 치하한 진우 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주도해왔고, 한민족의 정신문명을 이끌어왔다"면서 "하지만 1980~1990년대를 지나면서 불교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자비와 상생, 호국불교 등 지금까지의 불교 정신이 쇠퇴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 사회가 물질문명은 발전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으로 잘사는 사회가 됐지만, 지금도 괴로움과 고통, 갈등이 산재해 있다"면서 "당장 빠르게 물질문명을 발전시켰던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는 명상이 대세가 된지 오래다. 화합과 자비정신을 갖고 있는 불교가 이 문제에 대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K-명상'을 한국불교의 전법 포교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포교사들에게 부단한 수행정진을 독려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3가지 연기법, 인과법, 중도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포교사들이 명확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명상을 해야 한다"면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분별심을 없애 육바라밀을 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광주전남과 전북 포교사들이 6월 3일 순천 송광사에서 진행한 하안거 결제 이후 포교사의 수행을 점검하고 남은 안거기간의 정진을 다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강윤구 광주전남지역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의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전북지역단장도 "우리는 보현보살 행을 실천하는 행자이다. 앞으로 더욱 불교를 포교하는데 매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여한 김영석 포교사단장도 축사를 통해 "두 지역단의 오늘 이 자리는 두 지역단 활동의 성과를 맺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종단을 외호하고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포교에 매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살법회에서 포교사들은 〈범망경 보살계본〉 '사십팔경계'를 합송하며, 포살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 국제포교사회 대표 정혜 스님을 비롯해 김영석 포교사단장, 강윤구 광주전남지역단장, 김용수 전북지역단장 등 2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전북지역단은 10월 27일 금산사에서 세 번째 포살법회를 개최한다.

전국비구니회, 제14차 전국지회장회의

7월 12일 전북지회 주관으로 본각스님 등 15곳 지회장 참석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제14차 전국지회장회가 전북지회 주관으로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됐다.〈사진〉

7월12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지회장회의는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전북지회장 정혜 스님(마하사 주지) 등 전국에서 15명의 지회장스님들과 전북지회스님들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 개최된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지회장스님들께 감사드린다" 며 "비구니 승가회가 여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와 격려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동참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참자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하고 많은 감동을 줬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차기 지회장회의 개최지는 제주지회 주관으로 9월 4~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불탑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정혜사에 비구니 스님들의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참석한 스님들은 12대 비구니지회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한 질문지에 답변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지회장 정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회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본각 스님과 상덕 스님을 비롯한 지회장 스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호남불교가 교세가 약세인 만큼, 지역 스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국 지회장스님들이 호남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정성이 담긴 공양과 선물을 준비해 주신 전북지회 스님들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어청련 7월12일 장학금 전달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대표 동천, 이하 어청련)은 7월 12일 강진 시방사(주지 성묵)에서 '2023 청소년 꿈키움 장학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 신기마을 4가구 11명 학생에게 장학금 22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시방사 주지 성묵 스님, 어청련 이사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지장암 주지 선혜 스님,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도성 스님은 "불교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보문복지회 대표이사 연규 스님 취임

7월 5일 이·취임법회 봉행
연규 스님, 기금·쌀 전달해



사단법인 보문복지회 제2대 대표이사에 취임한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수 지역 최대 복지재단이자 불교 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문복지회 제2대 대표이사에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 연규)는 7월 5일 여수시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1대 대표이사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과 제2대 대표이사 연규 스님(향일암 주지)을 비롯해 우석 스님(화엄사 부주지), 효광 스님(용문사 주지), 담연 스님(은적사 주지), 혜욱 스님(한산사 주지), 정환 스님(홍선사 회주), 해덕 스님(보문복지회 이사) 등 지역 사암스님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임채욱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대환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장, 위재춘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연규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여수지역 사회복지계의 버팀목이자 선각자이셨던 진옥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자비심으로 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을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옥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40년 전 여수와 인연을 맺으면서 경전읽기, 환경운동, 복지사업 등 3가지 수행을 서원했다"며 "앞으로 보문복지회는 교구본사인 화엄사 법인으로 본·말사가 힘을 모아 지역불교와 여수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는 2005년 여수, 순천, 구례지역에서 12개의 복지기관을 직영 및 수탁하고 있으며, 450여 명의 종사자들이 불교복지를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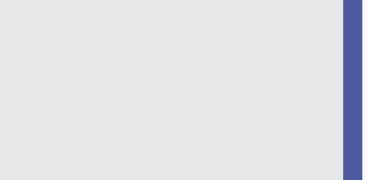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우석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보문복지회는 초대 대표이사 진옥 스님의 확고한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여수 최고의 사회복지법인이 됐다"며 "새롭게 대표이사를 맞이한 보문복지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규 스님은 진옥 스님의 공적에 대한 감사패와 염주, 꽃다발을 증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법인발전기금 2000만원·자비나눔 쌀 1000kg을 보문복지회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시각장애인 경로행사 후원

7월 12일 행사서 진안군 공동 점심식사, 문화공연 등 제공해



진안 쌍봉사가 진안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문화행사를 진안군과 함께 후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7월 12일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함께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를 후원했다.〈사진〉

진안군 전통문화전시관에서 열린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진안군지회(회장 김춘심)가 주최했으며, 시각장애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심 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쌍봉사 보경 스님은 장기자랑 상품과 경품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진안군과 쌍봉사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 후 장기자랑, 초청가수의 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마음이 쓰인다" 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쌍봉사 보경 스님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600년 역사 日 고찰, 지역 주민에 개방

1441년 건립된 단바시 즈이운지
5년 전 청소년들에게 경내 개방
코로나19 때 야외장소 필요 통감
주차장에 탁구대 · 농구골대 설치
지역주민에 '만남의 장소'로 화제

박영빈 객원기자

등산로를 옆에 끼고 자리 잡은 고찰 즈이운지(瑞雲寺). 최근 경내 전각과 휴게시설을 비롯해 도량의 곳곳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면서 지역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3일 일본의 '코베신문'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녹아든 고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도했다.

효고현 단바시(丹波市)에 소재한 즈이운지는 조동종에 소속된 선찰로 1441년, 지역 토호가 당시 영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즈이운지는 사찰이 아닌 요새나 성벽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는 공법으로 지어져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고찰이다.

이러한 유서 깊은 도량이 지역주민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경내를 개방한 것은 약 5년 전의 일이다. 현 주지인 와타나베 슌묘 스님과 부주지인 소슌 스님은 "과거 사찰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놀이터로 이용됐다. 그러한 환경을 되살려 소중하게 전하고 싶다"며 개방을 결정한 계기를 전했다.



즈이운지에 만들어진 농구코트에서 노는 아이들. 사진출처=코베신문

가장 먼저 차고로 사용됐던 가건물을 정리하여 탁구대를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일부에 농구 골대를 직접 설치하여 농구 코트로 개조했다. 소슌 스님은 "명절이나 큰 법요 외에는 기본적으로 실제 주차되는 차가 몇 대 없는 부지"라며 농구 코트를 만들어도 도량을 운영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학창시절 학교나 동네를 불문하고 공 하나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농구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 농구 코트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밝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도량 개방시도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소슌 스님은 "시내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대한 소중함을 통감했다"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호를 더욱 넓혔다.

특히 즈이운지는 올해부터는 농구 자유투 대회를 시작했다. 경기 전에는 즈이운지의 스님들이 간단히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로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즈이운지 측은 "행사의 공지와 절의 홍보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덕분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귀성한 학생이나 인근 지역에까지 절이 알려지면서 '인연의 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슌 스님은 이런 열기를 계속 밀고나가 앞으로는 댄스 대회, 음악 이벤트까지 폭넓게 경내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스님은 "미래를 담당하는 젊은 세대가 선인들이 지켜온 이 도량을 친근히 느끼고 또 새로운 연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역주민들과 젊은이들이 당연한 듯이 '절로 놀러간다'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며 웃어 보였다.

달라이 라마 "中, 나와 대화 원한다"

인도 다람살라서 "중국 비공식 대화 의향 전달" 밝혀



달라이 라마<사진>가 최근 "중국이 대화 의향을 내비쳤다"고 발언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와 타국의 만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화해 기류는 어불성설이라는 관망도 나온다.

7월 10일 미국의소리방송 등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최근 중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 측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대화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대화 의향을 밝혔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는 또 "중국이 티베트 인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인식했고, 나와 접촉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 "나는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달라이 라마의 말과는 달리 중국의 기류는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다. 중국은 7월 9일(현지시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와 미국 우즈라 자야(Uzra Zeya) 외교관이 만난 것을 두고 "어떤 외부 세력도 티베트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7월 10일 항의했다.

우즈라 자야는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에서 "티베트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지속적 관심을 표하고 지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델리 주재 중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 "중국은 외국 관리들과 티베트 독립군들의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달라이 라마는 결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중국 분리 활동에 참여하고 서장(티베트)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시도한 정치적 망명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티베트 망명 정부는 철저한 분리주의 정치 단체이자 중국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는 불법 조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일 다람살라에서 8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달라이 라마는 두 살이 되던 1937년 환생을 검증하는 여러 시험을 통과한 끝에 달라이라마로 인정받았고 이듬해 공식 즉위했다. 이후 1950년 중국의 침공으로 티베트가 주권을 잃고, 1959년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봉기했다가 실패하자 인도로 탈출해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티베트 스님, 세계평화 기원 2000km 오체투지 회향

지난해 10월 29일 부다가야 출발
9개월 여정 홀로 수레 끌며 순례

티베트에서 온 스님이 홀로 손수레를 끌며 9개월에 걸쳐 성도성지 부다가야에서 다람살라까지 2000km가 넘는 오체투지 순례를 회향해 화제다.

7월 5일 '자유 아시아 방송', 'VOA 티베트' 등의 외신들은 순례를 회향한 깰상땐진 스님의 여정과 인터뷰를 특별보도했다.

올해 세납 61세의 깰상땐진 스님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의 거주지인 다람살라를 목표로 오체투지로 순례를 시작했다. 깰상 스님이 오체투지 순례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세 번째다.

스님은 2008년 동부티베트의 고향마을인 휘추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해 그해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에 도착했다. 이후 2014년엔 라싸에서 부다가야까지 오체투지로 순례했으며, 2017년에는 부다가야에서 네팔까지 약 483km를 도보로 순례했다. 6월 30일, 다람살라에 소재한 달라이라마의 직속사원인 남걀사원에서 순례를 회향한 스님은 수많은 불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회향기도를 마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스님은 "이 절을 올린 공덕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머물고, 중생들과 이 세계의 평화에 회향되길 바라는 것이 오직 나의 바람"이라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보였다.



9개월간 홀로 2천 km가 넘는 오체투지 순례를 마친 깰상 스님. 사진출처=자유 아시아 방송

깰상 스님은 세 번째 오체투지 순례를 나선 계기에 대해 "인도에 와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오체투지를 하는 공덕을 모두 세계평화와 모든 중생의 안녕,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오래 머무시는 데 회향하기로 발원하고 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침구와 식량, 생필품을 손수레에 싣고서 홀로 수레를 끌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9시에 절을 마치는 일정에서 스님은 "날씨가 좋을 때 하루에 약 8km를 걸었지만 가파른 길이나 악천후에는 그 절반정도만 나아갈 수 있었다. 평원에서는 수레를 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다람살라에 다 와서는 가파른 언덕길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며 어려웠던 여정을 회고했다.

7월 5일 오전, 스님의 바람에 따라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뵙고 순례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다. 존자님의 치하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진정으로 모든 순례가 회향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지난 8개월 동안의 여정에서 나의 소식을 들은 티베트인, 인도인, 평범한 구경꾼들까지 많은 은혜를 입으며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지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8세기 사원, 10대 캐나다 소년 의해 훼손

국보급 도쇼다이지 본당 기둥에 'Julian' 새겨

일본의 8세기 사원이 캐나다인 10대 관광객에 의해 일부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월 10일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혼슈 남쪽 나라시에 위치한 국보급 불교 사찰 도쇼다이지(Toshodaiji Temple)가 17세 캐나다인 소년에 의해 훼손됐다.<사진> 소년은 도쇼다이지 사원을 둘러보던 중 금당 기둥에 손톱으로 글자를 새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당은 일본 초기 불교 건축의 대표 양식으로 꼽혀 국보로 지정됐다. 소년은 지상으로부터 1.52m가량 높이에 'Julian'이라는 단어를 새겼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본인 관광객이 소년이 기둥을 파손하는 것을 보자마자 신고, 당국 경찰은 소년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나 일본 문화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현재는 돌려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쇼다이지에서 수행 중인 한 스님은 마이니치신문에 "소년이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15년에 나라시를 포함한 6개 현 불교 사찰에서 기물 파손 사건이 벌어졌다"며 "대부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또는 국보급 문화재였다"고 보도했다. 도쇼다이지는 759년 당(唐)나라 회남(淮南) 지방의 고승 간진다이시(鑑眞大師)에 의해 창건됐다. 남도 6종의 하나인 율종의 총본산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신진작가들 붓끝으로 붓다를 담다

아소카미술연구회 첫 전시회
7월 31일까지 무우수갤러리
'K-ART' 전시 시리즈 일환
작가, 수복자 등 회원 참여해
새로운 감각 불교 작품 선보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도아作 / 육도윤회도 / 마본채색 / 305cm x 192cm

아소카 대왕은 인도 마우리아 왕조 3대 군주로 불교를 부흥시킨 전륜성왕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이 불법(佛法)을 홍포한 아소카 대왕의 사상과 정신을 흠모한 젊은 불교미술인과 학자들이 결성한 '아소카미술연구회(회장 심주완)'가 첫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소카미술연구회는 7월 31일까지 서울 종로 무우수갤러리 3~4층에서 첫 성과전 '붓끝에 붓다'를 개최한다.

'붓끝에 붓다' 전시는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작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작가 김도아의 작품 '육도윤회도'는 아잔타 석굴이나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도상을 우리 전통 도상에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작가 김성태와 현승조의 작품 '깨달음(覺)'은 진리를 찾는 추상적인 내용을 단지 첫 글자의 위치를 통해 선문답처럼 드러내고 있다.

작가 박근덕의 '봄바람, 아련하니'는 생명의 고귀함과 대지에서 기운을 흡수한 식물의 에너지를 단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작가 오지수의 '보현보살도'는 고려불화의 정교한 모사이지만, 마치 우리 곁의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듯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전통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전통 예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 미술은 예술혼이자 수행과 구도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출품작들을 보면 붓끝에 담긴 그 고도의 집중을 읽을 수 있으며 작가들이 드러내고자 한 진정성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림 속에 드러난 붓다는 작가가 정신을 붓끝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손을 타고, 붓을 통해 드러난 작가들 내면의 붓다일 것이다.

그렇기에 '붓끝에 붓다' 전은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붓끝으로 그려낸 예술혼일 수도 있고, 붓끝으로 그려낸 붓다, 즉 부처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수완 우석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붓끝에 붓다' 전의 작품에서 수행의 면모로서의 창작 의도를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다. 아마도 '우리 곁의 깨달음'이 이들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일 것"이라며 "작가들은 그들의 붓끝에 선 자신을, 그리고 붓다를 보았을 것"라고 평가했다.

심주완 아소카미술연구회 회장은 "아소카미술연구회는 실제로 작품을 창작하는 전통미술 작가, 연구하는 이론가, 보존하는 수복자, 활용하는 경영자와 후원자가 모여서 한국 전통미술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연구 모임"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첫 전시회를 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 국악페스티벌 '국악관현악축제'

7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동국대 등 11개 대학 80명 참여
박애리 교수, 佛歌 '보렴' 선보여



국악 전공 대학생 80명이 신인 연주자로 데뷔하는 국악축제가 열린다.

국립국악원과 한국음악협회는 오는 7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23 국악관현악축제'를 개최한다.

국악관현악축제는 국악인들의 화합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음악 축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부터는 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신진 국악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관현악축제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이 총예술감독을 맡아 공연을 진두지휘 하며, 신설된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도 5기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에 참여한다. 5기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동국대를 비롯한 11개 대학 재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불교 관련 작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박애리 동국대 한국음악과 대우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공연하는 불가(佛歌) '보렴'은 본래 남도잡가 중 한 곡으로 박범훈 총감독에 의해 관현악에 맞춘 성악 협연곡으로 재탄생했다.

한편, '2023 국악관현악축제'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한국음악협회 사무국(02-2655-3061, 3063)으로 전화 예매가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박경빈 作/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감지 금니/ 48.5×28.5cm

전통사경 맥 잇는 장인 작품들 만난다

한국사경연구회 제18회 전시회
7월 19~25일 갤러리 라메르서

전통사경은 불교 경전을 전파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수행과 공덕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 사경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통사경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사경연구회(회장 박경빈)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갤러리 라메르 1층 1관에서 '불교 문화재의 보고(寶庫), 전통사경'이라는 주제로 18번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김경호 사경장(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과 박경빈 한국사경연구회장을 비롯한 4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전통사경(권자본 · 절첩본), 현대사경, 서각 등 총 4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성민 기자

연꽃 관련 전시 2題

'연꽃 사진 장인' 동욱 대종사 작품 '한자리'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시
'꽃을 드니 미소 짓다' 개최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연꽃 사진 전문가인 선암 동욱 대종사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는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특별전 '꽃을 드니 미소 짓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40여 년의 세월동안 초지일관 오직 연꽃만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동욱 스님의 연꽃달력사진 252장과 병풍 1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수행과 보시의 원력으로 연꽃 사진을 찍었기에 동욱 스님의 연꽃 사진 속에는 승가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빛과 향기로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동욱 스님은 "출가 사찰인 해인사에서 전시를 열어 기쁘다. 수행의 방편으로 담아 본 미흡한 작품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의 연꽃을 함께 피워 세계일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시회를 기획한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는 연꽃의 수식어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해인사를 찾는 관람객들이 연꽃 닮은 수행길을 일구어 너와 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연꽃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전시회에 출품되는 동욱 스님의 연꽃 사진. 2006년에 촬영됐다.

'처염상정' 상징 연꽃, 선서화로 만난다

태범 스님, 7월 21일부터 화엄사 성보박물관서 초대전

연꽃 선서화(禪書畵)를 통해 대중포교 나선 태범 스님의 전시회가 열린다.

경주 흥덕사에 주석 중인 태범 스님은 7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연연(蓮緣), 화엄에 묻다'를 주제로 초대전을 개최한다.

태범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 선서화예술을 전공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꽃 선서화를 그리기 시작한 스님은 매일 참선과 기도 후 토해 내듯 그림을 그려낸다.

태범 스님은 "무념무상,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면서 "이번 연꽃 그림들은 화선지와 붓, 먹 등이 화합해 이뤄낸 선화(禪畵)"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태범 스님이 3년 동안 수행을 통해 벼려낸 연꽃 선서화 60점을 선보인다. 선적 기풍을 담았기에 화제(畵題)도 작품 제목도 없다.


태범 스님作/ 무제 40
수묵담채/ 68cm×44.5cm

태범 스님은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꽃이자 불교의 성스러움을 담은 꽃"이라며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닫고 모는 번뇌에서 벗어나셨다. 저도 연꽃 선서화를 통해 불법(佛法)을 전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한
주요 경전의 핵심 내용만 쏙쏙!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판형
부담 없이 읽어 보는 나의 첫 불교 경전 입문서

(김성옥 지음, 16,000원)
우리 안의 굳은 편견과 어리석음을 부수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

02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16,000원)
우리의 이야기가 될 붓다의 이야기

(박보람 지음, 16,000원)
모든 존재가 자신의 참모습대로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2~7/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가시를 거두세요 :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6	담마빠다(법구경)깨달음의노래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7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불광출판사
3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8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용화
4	한글 아함경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 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	불교신문사
5	젠만다라 컬러링북 (명상과 집중에 도움이 되는 100가지 색칠하기)	데상 앤 뜰로라	담앤북스	10	법구경 이야기(1) 법구경주석서	무념, 응진	옛길

책세상

무아, 대자유를 위한 가르침



무아, 그런 나는 없다
홍창서 지음 / 김영사 펴냄
1만4800원

서양철학과 불교로 '나'를 증명
데카르트 명제 허점들 지적하며
무아가 왜 자유를 향하는지 살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우일 사진제공=김영사

살면서 이런 고민이나 사유는 한번쯤은 해보지 않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스님들에게 서양철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강의하는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질문은 지적으로 살짝 사기를 쳐 놓아서 멋지게 보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당황스럽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자가 스스로 건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토닥인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이비 철학임을 꼬집는 홍창성 교수가 내놓은 〈무아, 그런 나는 없다〉(이하 〈무아〉)는 '나' 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이자 붓다가 설하신 '무아(無我)' 에 대한 증명들의 여정을 담아냈다.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라는 질문과 '나는 무엇인가(What am I)' 라는 질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누구와 무엇의 의미를 적당히 섞어서 혼동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질문"이라고 지적하고 '누구' 가 아닌 '무엇' 임을 묻는 질문으로 수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자아와 혼 그리고 인격체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자아가 무엇인가를 더 선명히 이해시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 또는 영혼이 개념적으로 모순이라고 밝히며 자아나 영혼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수정된 질문에 끝에는 붓다의 '무아론' 이 있다. 저자는 '나의 존재' 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설명인 불교의 '무아론' 을 심리철학, 언어철학, 형이상학 등 서양현대철학의 통찰을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논증한다.

특히 5장에서는 '무아론' 에 대한 서양철학의 가장 강력한 도전인 데카르트의 철학을 고려하고 논의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에 대해 저자는 그의 견해가 오히려 무아론에 의해 반박된다고 논증한다. 그리고는 '부분이 모인 전체는 실재한다' 는 우리 일상의 상식이 무아론을 반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철학의 관점에서 불교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해 호평을 받았던 저자는, 어쩌면 정반대일 것 같은 서양철학의 논증과 접근법을 통해 불교의 '무아' 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막연히 '나' 라고 믿고 있던 갖가지 나의 정체를 살펴보고 '그런 나는 없다' 를 증명하는 반면, 법적 · 도덕적 책임이 있는 '인격체로서의 존재' 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느낌이나 상태, 어설픈 논리의 비약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나는 없다' 말하며 '무아' 를 무책임한 핑계거리나 초월적 개념으로 삼는 것도 경계한다.

서양철학의 논법으로 서양철학의 허점을 짚어내기도 하고, '참나' 와 '무아' 가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불교의 애매한 상황도 진단하면서, 자칫 허무주의로 오해받기도 하는 '나 없음' 의 의미와 가치를 입체적으로 정리했다.

결국, 저자가 밝히는 '무아' 는 '진정한 자아 또는 참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렇기에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우리는 모두 공(空)한 인격체"라는 명제는 곱씹어 생각해볼 만 하다.

"모든 죽어가는 존재를 위하여"



리빙 이즈 다잉
종사르 잠양 켄체 지음
수연 옮김
팡세 펴냄 / 1만 8000원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 종사르 잠양 켄체 린포체의 저서 '리빙 이즈 다잉' 이 한국독자들을 위해 나왔다.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죽음의 필연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저자는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에게 물어온 죽음에 관한 백여 개의 훌륭한 질문에 대한 답본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무엇보다 죽음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돌아와서 죽음이 무엇이라 말해준 이가 아무도 없다. 설령 누군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모른다' 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죽음을 대비하는 현명한 길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가보고 싶었던 모든 곳을 여행하며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고, 마치 마지막이 될 것처럼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고 스티로폼 컵이 아닌 멋진 찻잔에 맛있는 차를 즐기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언제나 원해왔던 것을 지금 당장 하라, 어쩌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우리를 일깨운다.

▲저자 **종사르 잠양 켄체**는?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난 켄체 린포체는 7세 되던 해에 사캬 티진 존자가 켄체 법맥의 세 번째 환생자로 확인했다. 켄체 린포체는 12세까지 시킴 왕국의 왕궁에서 교육 받았다.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많아 불학원과 강원 설립, 수행자들 후원, 불서 출판과 역경 등을 위한 기관 설립과 활동을 주도해 왔다. 2001년에는 불교 공부, 수행,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 단체인 '켄체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작품으로는 〈바라:축복〉 〈헤마헤마〉 〈송곳니와 수염이 난 여인을 찾아서〉 등이 있다. 저서로는 〈우리 모두는 부처다〉 〈궁극의 행복〉 〈행복을 위한 발걸음〉 등이 있다.

임은호 기자

자신만의 관음보살을 완성하는 시간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그림
운주사 펴냄 / 1만4000원

예로부터 사불(寫佛)은 사경(寫經)과 더불어 수행과 신행의 한 방편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이 책은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을 현대인에게 익숙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 재해석해 그린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흔히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불린다.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눈으로 뭇 중생들을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들을 고통과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 물론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다. 그런 만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이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중생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반증이다.

관세음보살 42수주는 42개의 손과 지물, 그리고 그에 따른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모습과 진언에는 중생들의 다양한 서원과 바람이 담겨 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이 예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한 후,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본래의 42수주 진언은 간단한 손모양과 지물로 돼 있는 데 반해 그의 작품은 관세음보살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려내고 있다.

본래 42개인 '수주' 를 비슷한 내용끼리 합해 22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영어를 함께 수록했다. 뒷부분에는 채색까지 마무리한 그림들을 수록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사족에 불과할 뿐이니 마음 가는 대로 자신만의 관세음보살을 완성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향한 지극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할 뿐이다.

임은호 기자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

마운드 떠나는 '太古 구원투수'의 소회



평안케 하소서
호명 지음
승한 정리
태고종출판부 펴냄
2만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태고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일을 향한 종단의 변화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 그것은 바로 종도 여러분과 불자님들의 굳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종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큰 원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9년 10월 17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취임사 中

돌아보니 지난 4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첫 걸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예상하고 들어선 길이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한국불교 역사를 고스란히 계승한 전통 종단임에도 예기치 못한 내홍으로 추락한 종단 위상. 어두운 터널 안으로 걸음을 옮기며 호명 스님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되새겼다.

2015년 폭력으로 얼룩진 분규사태, 2019년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으로 인한 갈등까지 불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태고종. 이런 상황에서의 차기 총무원장직은 누가 봐도 '잘해야 본전'인 자리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순서마저 2위에서 5위까지 물러나야 했던 뼈아픈 현실. 그렇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제27대 총무원장이 된 호명 스님은 위기 상황에 등판한 '구원투수'다.

〈평안케 하소서〉는 종단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기치로 활동한 호명 스님의 4년을 후학이자 곁에서 시봉한 한국불교신문 주간 승한 스님이 정리한 책이다. 책은 '호명 스님의 발원'이라는 부제에 맞춰 △사부대중과 함께 걸어온 4년의 여정 △한국불교태고종의 발전을 위한 발원 △수행자들을 위한 발원 △불국정토 장엄을 위한 발원 등 총 4장으로 나뉜다.

수년간 계속된 종단 불안정
무거운 마음으로 원장 맡아
'안정 · 화합' 기치로 내걸고
종단위상 회복에 온 힘 쏟아



2019년 10월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책은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시작으로 선암사 개금불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태고문화축제,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추대법회 등 종단 주요행사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봉축점등식, 연등회, 정관계 인사들의 예방 등 태고종 위상 회복을 위한 호명 스님의 대외활동을 사진으로 담았다. 여기에 신년사와 봉축사, 각종 법문과 축사 등을 원문으로 더했다.

종단 지도자로서 단상에 선 호명 스님은 늘 같은 법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화엄경과 법화경, 자비경, 대지도론, 법성게뿐만 아니라 새벽종송까지 인용해 대중에게 법을 설했다. 그러면서도 선사들이 남긴 선시를 가장 많이 활용한 호명 스님. 스님은 그 중에서 조선후기 문신인 이양연의 시이자 일각에선 서산대사의 것으로도 알려진 시를 마음에 새긴다.

답설야중거 (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 (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 (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 (遂作後人程)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호명 스님은 지난 4년,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길을 잘 걸었는지, 잘 걸어왔는지, 발자국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바른 길을 걸었는지 돌아본다.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작 열 살의 나이에 찾아간 선암사. 열다섯이 되던 해 머리를 깎고 사미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자신을 더 나은 수행자로 살도록 이끌어준 은사 성월 복철 스님을 그리며, 흐트러진 발자국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호명 스님은 4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며 자부심을 느낀 일로 월간 〈불교〉의 복간을 꼽았다. 또 2022년부터 시작한 '한국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로 태고종과 기관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 보람이라고.

반면에 포교불사는 스님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영산재와 수륙재, 생전예수재 등 불교문화의 보고를 간직하고도 포교와 전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호명 스님은 "종단의 유 · 무형 불교문화재를 활용해 포교와 전법불사를 펼치는 것은 다음 소임자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책을 정리한 승한 스님은 호명 스님과 4년간의 리더십을 '외유내강'으로 표현한다.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는 품 넓은 지도자이자 항상 모든 사부대중을 위한 축원을 올린 수행자. 위기에 빠진 종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구원투수는 그렇게 다음 사람에게 공을 건넸다.

▲저자 **호명 스님**은?

성월 복철 스님을 은사로 1962년 출가해 1964년 선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한 뒤 서울 노원구 염불사 주지, 제30세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총무원 종무조정실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총무원 부원장 등을 맡았으며, 서울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와 노원경찰서 경승실장으로도 활동했다.

아이와 함께 읽을 동화 2選

동화로 만나는 대장경 수호자 '김영환'



빨간 마후라 팔만대장경을 지키다
정영애 지음, 윤문영 그림
도서출판 물망초 펴냄 / 1만5000원

매년 해인사에서는 특별한 추모제가 열린다. 바로 폭격으로부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김영환 장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이다. 김영환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었고, 6.25전쟁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영웅이기도 하다. 불교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6.25 전쟁 포로 송환과 북한 이탈 주민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사)물망초의 산하 출판사 도서출판 물망초는 최근 역사 동화 〈빨간 마후라 팔만대장경을 지키다〉를 펴냈다. 〈빨간 마후라〉에는 공적에 묻혀 있던 김영환 장군의 가족사와 불심(佛心), 스님들과의 인연담이 담겼다.

비행기를 유난히 좋아한 김영환 장군이 공군이 되어 나라를 빛낸 영웅이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김영환 장군은 군인 가족이었다. 일본에서 유학 중 항공학교에 입학한 김영환 장군은 해방 이후 발발한 6.25전쟁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돼 참전한다.

장군은 호기심과 상상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항상 평상심을 유지했다. 전쟁 당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과 그 이전에 남한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합류해서 유격전을 벌였는데 이들이 빨치산이다. 빨치산들은 주로 지리산 인근에서 활동했다. 빨치산들이 해인사에 숨어들자 사천기지에 있던 김영환 장군은 작전명령을 받는다. 바로 빨치산 섬멸 작전. '일시: 8월 26일 오전 10시, 지원공격목표물: 화문산과 가야산 일대 항공 지원 요망.'

김영환 장군은 일전에 해인사를 방문하여 주지스님에게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폭격을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저공비행으로 빨치산들을 해인사 바깥으로 몰아낸 뒤 작전에 성공한다.

이 책에는 우리 가슴에 애국심의 씨앗을 심어줄 또 다른 훌륭한 위인들이 있다. 우리나라 공군을 창설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영환 장군의 형인 김정렬 장군, 빨치산들의 위협에도 해인사를 지킨 주지 효당 최범술 스님, 김영환 장군이 참 애국자라고 한 차일혁 경찰 대장과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선조들이다.

신성민 기자

기후위기 극복 지혜 엿보다



엄마는 어디에
이도흠 글, 윤다은 그림
특서주니어 펴냄 / 1만4000원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의 스펙트럼은 다채롭다. 본래 전공은 고전시가 연구로 원효의 화쟁사상을 기호학과 연결해 '화쟁기호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동화작가로 변신했다. 본격 생태 · 교육 · 철학 동화 〈엄마는 어디에〉를 선보여서다. 항상, 어려운 글만 쓰던 교수님이어서 '읽힐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지만, 그건 기우였다. 꽤 재미있게 읽힌다. '연어말'이라는 독특한 설정들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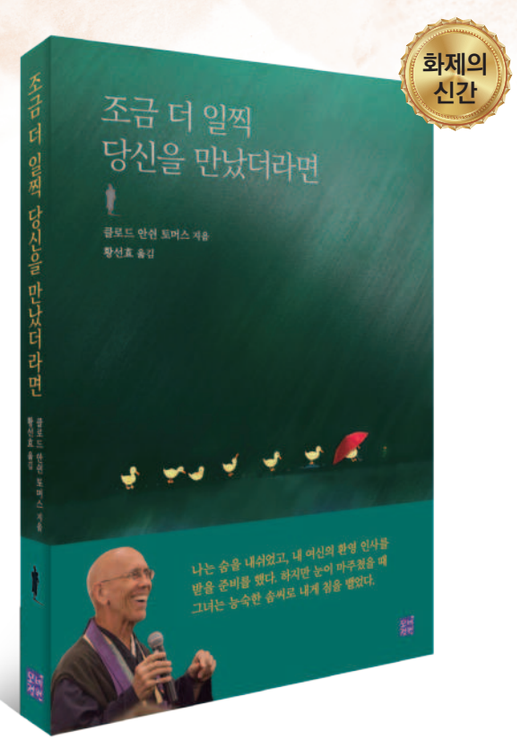
이야기는 물속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기 연어 삼남매 아리, 마루, 이든이 엄마를 찾아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나며 시작된다. 슬기로운 새미 '슬기샘'이 알려주는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따돌림을 당하는 약한 연어들과 마음을 터놓고 화해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고르게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기도 한다. '보드라운내'라는 따뜻하고 소박한 공간에서 시작돼 머나먼 '고래넘실바다'에 이르기까지, 아기 연어 삼남매의 이야기 속에는 배려와 존중, 화해, 공존의 가치가 녹아 있다.

〈엄마는 어디에〉에는 옆사람과 눈동자를 마주보며 그 안에 담긴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 것처럼 공감하는 저자 특유의 '눈부처' 사상이 어린이 눈높이로 담겨있다.

책의 말미에는 저자가 새롭게 꾸며낸 연어말을 풀이한 '연어말사전', 연어 삼남매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따라가며 그려볼 수 있는 지도도 수록돼 있다.

신성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6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2



▶한줄 요약
아이슈 무크암에 도착한 이 기자 일행은 성물 아디카야의 검이 있다는 동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검은 없었다.

아이슈 무쿠암 동굴엔 검은 없었다

-안지마라가 어디입니까?

내가 묻자, '나도 고서적에서 읽은 거 같은데….' 하고 송 서화가가 말했다.

-이곳 구도시 칸자르(kbanjar) 지역입니다. 나중에 묘지 주위에 건물이 세워졌지요. 그 건물을 라우자 발(rauza bal)의 준말인 로자발(rozabal)이라고 합니다.

-라우자?

송 서화가가 되뇌었다.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내 물음에 오오스마 기자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찾아온 성물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으니.

나는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일까 아닐까 그것을 떠나 무엇을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송 서화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동굴 앞에서 서성거리고만 있는 것이 그래서이지 싶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지요 우선.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 그럽시다.

송 서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뒤에서 보니 오오스마 기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동굴로 다가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는 걸 보니 예상했던 대로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동굴 안은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동방이 길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닥은 딱딱하고 바짝 말라 있었다. 약간 협소한 동방을 지나자 안이 호로병처럼 넓어지면서 큰 동방이 나타났다. 깬 자갈을 풀로 붙여 놓은 것처럼 비죽비죽 면이 고르지 않았다. 석순은 아니었다. 표면은 약간 잿빛을 띠고 있었다. 동방 중앙에 동산처럼 솟아오른 제단이 있었다. 직사각형의 사람 하나가 누울 수 있는 제단이었다. 예전에 이곳에 이슬람교의 성인의 유물함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유물함일지도 몰랐다. 더 가까이 다가들었다. 유물함일지도 모르는 직사각형의 돌바닥이 시커멓게 드러났다. 높이에 비해 바닥이 그리 깊지 않았는데 바닥이 평평했다.

-역시 없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작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전에 내가 왔을 때 분명히 인도 정부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물은 푸른 보자기로 덮여 여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 보자기 밑의 성물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없다?

오오스마의 말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자기의 눈을 못 믿겠다는 듯 바위 표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사람들이 근접하여 성물에 손을 대려고 한다면 큰 재앙이 미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성물이 없어졌다니.

-재앙이 있었다고요?

-전에 내가 왔을 때 주민이 그랬거든요. 저곳에 함부로 들어가다가 재앙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말이 있었답니다. 성물의 주인이 나타나면 칼이 스스로 자신의 품을 열 것이라고.

-그럼 정말 누군가 그 성물을 가져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되묻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제단의 높이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되묻는 송 서화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럼 푸른 보자기가 덮였던 건 바로 이 석관이었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우리의 키 만큼은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위에 석관이 놓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에 보자기가 덮였다는 말이 아닐까요? 재단 높이가 1m 50cm 정도는 되겠군요.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석관을 자세히 살폈다.

-맞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럼 제단 바닥 아래 공간이 있다?

오오스마 기자의 말을 들으며 송 서화가가 제단 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맞습니다!

소리를 들어 보고 난 송 서화가가 확신에 찬 소리로 말했다.

-속이 비었어요. 소리도 그렇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먹으로 두들겼다.

텅텅…. 분명히 속이 빈 소리였다.

-맞아요.

내가 물러서며 소리쳤다.

송 서화가가 나섰다.

-열어봅시다. 어디 입구가 있겠지요.



-우리들의 추리가 맞는다면…. 석관에 손을 대시겠다 이 말입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송 서화가가 나를 쳐다보았다. 이미 결심을 굳힌 표정이었다.

-전에 왔을 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나는 침착을 가정하며 말했다. 그래도 오오스마 기자가 머리를 내저으며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 송 서화가는 의외로 강단이 있었다. 그가 상의를 벗었다. 나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웃옷을 벗었다. 합장한 다음 석관으로 다가들었다. 오오스마 기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석관은 단단했다. 오랜 세월 돌이끼가 끼여서인지 그냥 직사각형의 바윗덩이 같았다. 두 사람은 행여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석관 주위를 유심히 살펴나갔다. 그러다 나의 눈에 오른쪽 모서리 부근이 금이 벌어져 있는 것이 보았다.

-여깁니다.

-석관의 뚜껑이군요.

송 서화가가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제야 오오스마 기자가 주춤주춤 다가왔다.

-이미 누가 손을 댄 것 같은데요.

송 서화가가 살펴보다가 허망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부풀었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송 서화가의 음성이 그 가슴 위로 천둥처럼 떨어졌다.

-열어본 자국이 분명해요. 여기 보십시오. 틈이 큰데요.

송 서화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더니 역시 밀봉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성물을 이렇게 버려둘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전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칼을 맞은 듯이 쓰렸다.

내가 미쳤구나. 어느 사이에….

-암튼 열어나 봅시다. 세 사람이 밀면 밀릴 것 같은데. 뚜껑이 틀림없다면 어떤 움직임이라도 감지되겠지요.

송 서화가가 말했다.

두 사람이 밀기 위해 석관에다 손을 댄 자세로 서 있고 오오스마 기자가 내키지 않는다는 얼굴로 다가왔다. 세 사람이 밀었지만, 석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을까?

송 서화가가 지쳐서는 털버덕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는 동굴 안을 살펴보았다. 틈새를 벌릴 무엇이 없을까 해서였다. 잠시 돌아보자 옷가지들이 협소한 공간에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구석 바닥에 나무 침대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나무로 짠 침상이었다. 아마 동굴을 지키던 자가 쓰던 것 같았다. 나무 도마 옆에 녹이 슨 부엌칼 하나가 보였다. 그 곁에는 주먹만한 망치도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석관 앞으로 돌아왔다. 칼과 망치를 들고 들어서자 오오스마 기자가 입을 벌렸다.

-아니 어쩌려고요. 이 신성한 곳을 칼과 망치로 어쩌시려고…?

-신성을 칼질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떨리는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송 서화가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듯 소리쳤다.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송 서화가가 신들린 사람처럼 눈을 붉히고 칼과 망치를 내게서 뺏어 들었다. 그리고는 석관을 향해 다가갔다. 이내 금이 난 곳에 칼이 꽂히고 칼등을 치는 망치 소리가 동굴을 휘어 감았다. 칼날이 점점 깊숙이 석관에 박히기 시작하던 순간이었다. 석관 뚜껑이 흔들렸다. 오오스마 기자가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송 서화가는 망치를 든 채 허리를 세웠고 나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헛된 낭설에 꼬투리가 잡히면 이대로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석관 뚜껑을 향해 달려들었다. 헛된 낭설이 신앙이 되면 남는 것은 미망일 터였다. 내가 낑낑거리자 송 서화가와 오오스마 기자가 달려들었다. 셋이 힘을 합하자 석관 뚜껑이 움직이다가 점차 옆으로 비스듬히 내려졌다. 석관 안을 보던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넨장할.

송 서화가가 풀썩 주저앉으며 내뱉었다.

헛걸음하고 돌아섰을 이석원의 모습이 눈앞을 스쳤다. 다시 어디로…?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동굴을 나와 갈 곳 없는 사람들처럼 퍼질러 앉았다.

-이럴 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참 허망하네.

오오스마 기자가 허공을 향해 후후 숨을 내뱉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나저러나 저 움막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야?

오오스마 기자가 눈이 부신 듯 손차양하고 허물어진 움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성물이 없어지고 군대도 돌아가니까 거처를 옮겼겠지요.

듣고 있던 송 서화가가 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찾아보면 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오기가 실렸다.

-그러긴 하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말했다.

-관할 관청에 가보면…. 혹시 거주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나라의 동사무소를 떠올리며 무릎을 쳤다.

-그러네요!

-지난번 취재차 왔을 때 일이 있어 찾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일어났다.

-어쩌시려고?

내가 묻자 오오스마 기자가 허리춤을 올리며 말했다.

-관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바라보았다. 택시에 기대어 있던 기사가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우리도 같이 가지요. 어차피 돌아가야 할 테니….

말하면서 내가 일어나자 오오스마 기자가 앞서 걸었다.〈계속〉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⑭ 간화선에서 화두의 유래와 효능



▶한줄 요약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한 마음은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과 분별심에서 일어난다. 내가 '있다-없다'하는 분별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화두를 챙기면 마음이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편안해지고 밝아진다.

화두참선, 생사 해탈 가는 지름길



성철 스님께서 주석한 해인사 백련암 좌선실에서 화두 참선하는 재가불자들.

일체의 분별 망상 차단하여
본래 마음 체험케 하는 화두
걱정꺼리 마음 새겨두기보단
중도 정견 세우고 공부해야

교황의 화두?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때 언론방송은 그 소식을 연일 크게 보도하였다. 한 뉴스의 제목이 재미있었다. '교황의 화두, 약자 먼저' 였다.

화두라는 말은 불교 선종에서 나왔다. 화두(話頭)란 '말 머리' 또는 '말' 이란 뜻이다. 말은 말인데 '말 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 이다. '뜰 앞에 잣나무' , '이 몸덩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등의 화두는 선사들이 쓰는 말로 번뇌에 휩싸인 중생이 망상을 멈추고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는 말이다. 선문에는 1700가지 화두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선문(禪門)의 화두를 교황이 말했을 리는 없다. 교황이 워낙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 제목을 붙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이나 신문 방송 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화두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범부들이 일상에서 쓰는 화두라는 말은 화두의 본래 뜻을 모르고 쓰는 것이다. 그냥 화제, 이슈, 주목할 과제 등의 뜻으로 화두라는 말을 쓰지만, 화두의 본래 뜻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서양의 이분법과 중도 불이의 가치

화두란 참선 수행자가 일체 번뇌망상을 비워서 마음을 깨치게 하는 말이다. 우리 인류는 말과 문자를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며 사유 분별로 지식과 학문을 발전시켜왔다. 인간은 말과 글자를 통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과학 기술 지식을 축적하여 인류 문명을 창조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이 발전시켜 온 언어 문자와 사유 분별 그리고 과학 기술과 지식 학문은 모두 나와 너, 주관과 객관,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선과 악 등 이분법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원론(二元論) 또는 이분법(二分法)이라 한다.

예수교(기독교)가 대표적인 이원론의 종교이다. 절대자인 신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했다고 하니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신과 인간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다. 예수교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이기 때문에 선과 악, 신과 사탄,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으로 세상을 둘로 본다. 이와 같은 이분법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는 선과 악은 영원히 화합할 수 없고 악은 제거해야 할 사탄일 뿐이다. 까닭에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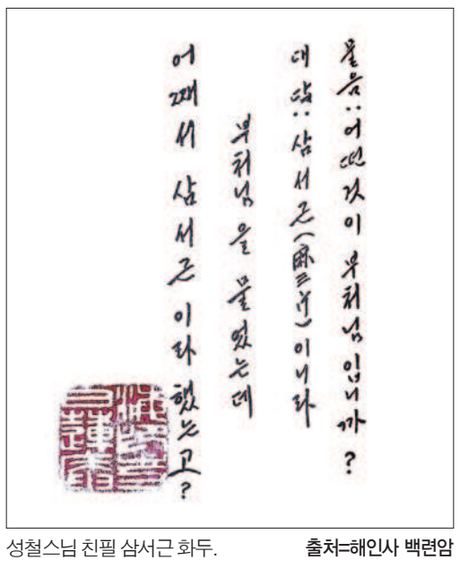
또한 인류가 언어 문자로 발전시켜 온 지식과 과학 기술도 이분법의 세계관의 산물이다. 소크라테스로 시작된 철학과 과학 기술 또한 옳고 그름, 주관과 객관 등 세상 만물을 나누어 보는 사유와 논리를 바탕으로 지식을 축적해온 산물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말과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유 분별의 이분법으로는 생사(生死)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체의 이분법을 떠나야 중도(中道)를 깨칠 수 있다고 한다.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당신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쳤노라고 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을 하였다. 부처님은 인류의 가장 근본 문제인 생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로 중도를 제시한 것이다. 부처님의 중도 불이(不二)의 세계관, 가치관은 나와 너, 선과 악, 주관과 객관이 서로 다르지 않고 본래 하나라는 지혜를 깨우쳐 준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지 1700년이 지난 12세기에 동아시아 중국에서 탄생한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바로 화두로 체험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수행법이다. 우리가 나와 너,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양변에 집착하 사유분별하는 마음을 화두로 바로 끊어 중도 불이를 깨치게 하는 탁월한 명상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화두의 유래

2005년 조계종 교육원과 전국선원수좌회가 공동 편찬한 〈간화선〉(조계종출판사)에는 화두가 육조 혜능대사의 법문에서 유래한다고 소개한다. 덕이본 〈육조단경〉에 혜능대사가 마음을 깨치고 오조에게 인가받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쫓아온 혜명스님을 만나 이렇게 첫 설법을 한다.



성철스님 친필 삼서근 화두. 출처=해인사 백련암

"선(禪)도 생각하지 말고 악(惡)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 무엇인가?"

이 설법을 듣고 혜명은 마음을 바로 깨친다. 이와 같이 화두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분별 사유를 멈추고 중도를 바로 깨치게 하는 말이다.

선종의 3조 승찬대사도 〈신심명(信心銘)〉 첫 구절에는 이렇게 중도를 설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미움과 사랑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미움과 사랑이라는 분별심을 비우면 중도가 바로 명백하다고 설법한다.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나와 너, 옳고 그름 등등의 양극단에 집착하는 분별망상을 버리면 바로 중도인 것이다.

그런데, 범부 중생은 나와 너, 사랑과 미움, 옳고 그름, 선과 악 등 양변에 집착하여 마음이 더물고 사량 분별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생사의 괴로움을 받아 온갖 악업을 지어 생사 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는 것이다.

12세기 중국에서 화두 참선을 창안한 대혜(1089~1163) 스님은 〈서장(書狀)〉(〈부추밀 계신에게 답함〉 1)에서 화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약 바로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홀연히 단번에 타파해야 바야흐로 생사를 통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하기를 '없다' 고 했습니다. 이 한 글자는 허다한 나쁜 지식과 생각을 꺾는 무기입니다. '있다 없다' 는 분별을 하지 말며, 도리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며, 의식을 향하여 분별하지 말며, 말길을 따라 살 계획을 짓지 말며, 화두 드는 곳을 향하여 깨달으려 하지 말며, 문자 속을 인용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루 생활 속에서 항상 참구해 가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고 한 것을 일용에서 여의지 않고 공부해 나가면 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내 천리의 일이 모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혜스님은 조주스님이 수행자와 묻고 답한 말을 화두로 삼아 공부하는 참선법을 제시한다. 대혜스님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15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고,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편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님은 주로 재가 생활 수행자들에게 불법에 정견을 세우고 화두 공부하여 마음을 깨치는 법을 편지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화두의 효능

현대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와 인간관계에서 만연한 스트레스와 짜증, 화, 우울 등 괴로움이 일어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경쟁 본위로 약육강식의 치열한 적자생존의 사회이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니 인간은 태어나서 학교 생활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경쟁해야 하고 결혼도 그렇고 삶 자체가 경쟁을 본위로 하는 괴로움의 바다이다.

현대인들은 삶 자체가 나와 남을 나누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일상 생활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부처님이 '삶은 고해(苦海)' 라는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는 시대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느낄 때, 스트레스와 짜증 화가 날 때, 막막하고 어둡고 우울을 느낄 때 화두를 하는 것이 좋다. 화두는 일체의 분별 망상을 차단하여 바로 본래 마음을 체험케 한다.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한 마음은 '나' 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 는 착각과 분별심에서 일어난다. 내가 '있다-없다' 하는 분별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화두를 챙기면 마음이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편안해지고 밝아진다. 이것이 화두 공부하는 법이다.

화두는 일상 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출퇴근할 때, 걸어갈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걷거나 운동할 때에도 화두를 챙길 수가 있다. 반드시 좌선할 때만 화두 참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일 때 화두 공부하는 동중(動中) 공부가 더 유용하다.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잠잘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걱정꺼리에 마음을 두기 보다는 화두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특히 현대인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초조 불안에서 살고 있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화두를 챙기면 금새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진다.

또한 현대인에게 만연한 불면증에도 화두가 좋다. 흔히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럴 때 화두를 배워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화두를 자꾸자꾸 챙기면 잠자기가 좋고, 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져 감기나 웬만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화두 참선은 반드시 정견을 세워야

흔히 불자들이 화두 참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책이나 유튜브를 보고 화두 참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는 화두 공부가 잘 되기 어렵다.

성철스님은 '화두 참선하려면 사상 정립을 하고 해야 한다' 하셨고, 고우스님은 '중도 정견을 세우고 화두 참선해야 한다' 고 늘 강조하셨다. 화두 참선은 생사 해탈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니 반드시 중도 정견을 세우고 화두 참선하는 법을 바르게 알고 공부해야 한다. 화두 참선을 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바른 선지식을 만나 부처님이 깨친 중도에 정견을 세우고 화두 공부를 해야 한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일일시호일

한쪽다리 겨우 살렸지만
재활까진 막막

시댁 괴롭힘 벗어나 홀로 생계 이어가던 파르바티씨
끊어진 힘줄 스님 · 도반 덕에 수술…빚 1000만원 남아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⑭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한줄 요약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쌍둥이처럼 닮은 한 쌍의 목조불상으로, 조성 시기가 천 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다.



1100년 역사 담은 쌍둥이 목불

883년에 제작한 쌍둥이 비로자나불

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다. 우주만유에 깃든 근본원리로서 형상이나 소리로 찾을 수 없다. 〈금강경〉 제26 '법신비상분'에서는 몸의 형상으로나 음성으로 부처님을 구하면 그것은 사도행이라 여래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교설에도 어긋나게 법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일까? 2005년 화마로 소실된 양양 낙산사 동종(1469년) 명문에 그 구절이 있었다. '이인중생지목시 이생기신(以因衆生之目視 而生其信)', "중생은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불상은 흙으로도, 돌로도, 금동이나 쇠로도, 나무로도 만들고, 옻칠한 삼베를 겹겹이 입혀 만들기도 한다. 목조불상은 유기물 재료가 지닌 물리적 한계로 시간의 한계치를 가진다. 목조건축처럼 중수되기도 하고 부분 보수의 과정도 거친다. 목조건축이나 목조각이 온전한 상태로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장면이다. 전란과 정치사회적 변동이 심했던 우리나라에서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간직한 목조 문화유산은 더더욱 희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1100여 년 전의 목조각이 현존한다. 그것도 쌍둥이처럼 닮은 한 쌍의 목조불상이다.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그 주인공이다.

두 불상은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각각 모셨다. 지금은 2007년에 새로 지은 대비로전에 함께 봉안하고 있다. 그 동안 두 구의 불상은 15세기 조선전기 목조각으로 여겨왔다. 2005년 7월에 법보전 비로자나불 개금 과정에서 불상 내부 등판에서 놀라운 묵서가 확인됐다. "서원대각간주등신사미우좌비주등신○/ 중화삼년계묘차상하절칠금착성(誓願大角干主燈身賜彌 右座妃主燈身○/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이라는 31자로 구성된 두 줄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한 줄엔 발원 내용을, 다른 줄엔 제작연도와 제작방식을 기록했다. 앞줄의 17자는 해석에 있어 여전히 논란 중이다. 왕실발원의 경우 통상 '주상전하수만세'를 앞세운다. 법보전 불상 묵서에선 왕과 왕비 대신 '대각간'과 '우좌비'가 등장한다. 대각간은 신라 골품제 관등에 해당한다. 신라 관등의 제1등이 각간이다. 대각간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특별관등으로 이해된다. 김유신이나 불상 제작시기의 각간 위흥에 대한 관등호칭이 그런 사례다. '대각간(大角干)'은 당대 권력의 실세로 추정된다. 관등 뒤에 붙은 '주(主)'는 '님'과 같은 쓰임의 존칭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좌비(右座妃)' 칭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오른쪽에 앉은 비이니 아마도 그의 부인일 것이다. '비(妃)'라는 예사롭지 않은 호칭을 고려할 때 당대 왕족 중의 여성 실권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묵서 기록 속의 두 남녀를 당대 권력 실세였던 각간 위홍과 왕 즉위를 앞둔 진성여왕으로 보는 시각도 터무니없지는 않다. 두 사람은 삼촌-조카 관계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염문설을 장식한 주인공들이다. 두 사람이 누구이든 묵서에서는 "두 사람이 두루 빛나기를 도와주시길(燈身賜彌) 바라며, 이 불상을 중화 3년 여름에 옻칠을 하고 금을 입혀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화 3년은 신라 제49대 헌강왕 재위 9년 해인 883년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4년 후 887년에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다. 제작연도 기록 중에서 여름철 '하절(夏節)'의 문장 속 위치가 기이하다. 그것은 '칠(柒)'과의 긴밀한 연관성 때문으로 보인다. 칠은 '옻칠'의 의미다. 옻칠은 칠과 건조 등을 고려할 때 장마가 낀 여름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다. '칠금착성(柒金着成)'은 "옻칠을 하고 금을 입혀 완성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167년 고려 때 중수는 사 씨 집안 발원

묵서 기록은 그 동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여겨오던 12, 13세기 고려중기 혹은 고려말기의 불상, 이를테면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1199년),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39년),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등의 고려시대 제작시기를 훌쩍 뛰어넘어 목조불상 편년을 통일신라시대까지 끌어올리는 확고부동한 실증이 됐다. 두 불상은 형상과 크기, 조형원리 등에서 마치 서로의 거울 같이 빼닮았다. 높이 125cm, 어깨 폭 64cm, 무릎 폭 95.5cm로 거의 동일하다. 높이에서 1cm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9세기 후반 제작한 것으로 본다. 쌍둥이는 누가 뭐라 해도 같은 날 태어난다. 해인사 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라 9세기 때 제작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 모습은 어제 제작한 불상만큼이나 생생하고 현대적이다. 무릇 예술의 명작들은 피땀이 밴 장인정신과 함께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에도 그 미적 가치가 빛나는 현재성을 갖는 공통점을 가진다.

> **목조불상 제작편년 9세기로 끌어올려**
> **고려시대 복장납입은 사씨 집안 발원**
> **조각보 3점 조각보 역사 600년 실증**
> **지권인은 만유가 하나인 위대한 선언**

그런데 의아하다. 9세기 통일신라 불상인데 어째서 조선시대 조형양식인 머리에 반원형 중간계주가 있고, 정수리엔 원통형 정상계주인 보주가 솟구치고 있는가? 그 의문은 두 불상 내부에서 나온 복장유물을 통해 해소된다. 2005년 두 불상에 대한 개금불사 과정에서 불상 내부에 납입한 복장을 확인했다. 두 불상에서 거의 동일한 경전과 다라니 등의 전적류, 후령통과 직물류 등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불상에서 나온 복장유물은 두 시대의 층위를 뚜렷이 보여준다. 불상은 두 차례 뚜렷한 중수, 혹은 보수 과정을 거쳤다. 한번은 12세기 고려 때, 또 한 차례는 15세기 조선전기 때 중수가 이뤄졌다. 고려시대 중수과정에선 경전 등 전적류가 불복장물의 중심이었고, 조선시대 중수에선 저고리를 비롯한 직물류가 복장물의 중심을 이뤘다. 불상도 중수, 혹은 보수가 가능한가? 목조불상은 통상 접목조기법으로 제작한다. 신체부위를 따로 조각해서 결합하는 원리다. 머리, 몸통, 손 등을 따로 조각하여 끼워 맞춘다. 실제로 두 불상의 경우에도 X선 광학조사 결과 머리와 몸통, 하반신 무릎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한 후, 팔과 손도 접합해서 완성했음이 밝혀졌다. 그럴 때 부처님의 머리카락 장엄형식인 나발 사이에 반원형 중간계주, 혹은 원통형 정상계주를 새로 만들어 시대 경향에 맞게 보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통일신라 목조불상에 조선시대 불상 양식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그 같은 불상중수 과정이 있다.



해인사 대비로전에 봉안한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향좌측 법보전 비로자나불, 향우측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1167년에 봉안한 전적류 복장물. 위에서부터 〈반야심경〉, 〈화엄경〉, 〈약사여래본원공덕경〉 사진자료=문화재청



1490년에 봉안한 복장물. 위에서부터 후령통, 중수발원문, 조각보 사진자료=문화재청

두 불상의 고려시대 중수는 합천 인근의 거창 가조지역 유력 세력가였던 사 씨(史氏) 집안의 발원으로 이뤄졌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에서 나온 전적류는 12종 이었다.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서는 19종의 전적류가 나왔다. 전적류 중에서 불교경전은 〈반야바라밀다심경〉, 〈대방광불화엄경〉, 〈약사여래본원공덕경〉 등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 〈반야심경〉이 주목을 끈다. 반야심경은 4면에 인쇄한 절첩 형식으로 펴냈다. 뒷부분에 발원문을 새겼다. 법보전 〈반야심경〉의 발원문은 붉은색으로, 대적광전 반야심경 발원문은 먹으로 찍어냈다. 둘 다 사 씨 집안의 발원문이지만 내용은 다르다. 법보전의 〈반야심경〉 복장납입은 "국자진사 사겸광이 정해년(1167년)에 돌아가신 백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대적광전의 복장납입은 "국자학생 사유직이 친부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반야심경〉을 인출하여 복장납입 한다고 밝혀뒀다.

15세기 조선시대 중수는 왕실 발원

15세기 조선시대 두 불상의 중수는 왕실발원으로 이뤄졌다. 그 같은 사실은 두 불상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의 〈해인사 중수원문〉에 근거한다. 중수원문은 남색 비단에 붉은 글씨로 썼다. 원문은 홍치 3년(1490년)에 당대 최고의 선사 학조대사가 적었다. 중수원문에 의하면 인수대비와 인혜대비가 선대 왕실의 뜻에 따라 1488년부터 1490년까지 왕실 내수사의 쌀, 면포를 풀고 노역승 300여 명을 지원하여 해인사의 판당(장경판전) 등의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법당의 주불과 문수, 보현보살을 보수 개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불상 보수 때 납입한 복장물은 후령통 장엄을 비롯하여 흩적삼 저고리, 조각보 등 직물류가 중심을 이룬다. 1490년에 납입한 복장유물과 안치방식은 약 100년 뒤 16세기에 정립한 불복장 의례서 〈조상경〉의 정형을 앞서 보여줘서 놀랍다. 직물에 짠 넝쿨연화문, 구름영기문, 보상화문 등은 현대의 디자인에 못지않게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직물류 복장물 중에서 조각보는 특별한 눈길을 끈다. 조각보는 대적광전 불상에서 1점, 법보전 불상에서 2점, 모두 세 점이 나왔다. 내소사 조각보(1415년)에 이어 한국의 조각보 역사가 600년이 넘은 뿌리 깊은 내력을 대변한다. 면 분할과 색채 구성이 대단히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명작 불상 속에 명작이 있다.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불교문화가 꽃을 활짝 피운 시기다. 8세기엔 불국사와 석굴암 불상 등 신라 불국정토의 이상화를 이뤄냈다. 두 불상엔 신라 불교문화 전성기에 이룬 불상의 이상화 경지가 뱄다.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에선 석굴암 불상의 근엄함이 흐르고,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에선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인자한 미소가 흐른다. 닮음 속에 차이가 있고, 차이 속에 통일이 있다. 대칭 속에 비대칭을 경영하고, 비대칭 속에 조화를 경영한다. 만물은 대칭의 깨짐을 통해 생명원리를 작동시킨다. 두 불상의 형상은 부드럽고 풍만하며 곡선의 선율이 유려하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의 독특한 수인이 범접키 어려운 아우라를 극대화한다. 지권인엔 고귀하며 위대한 선언이 담겨있다. 만유는 둘이 아니다! 단순한 심벌에 담긴 위대한 선언이다. 그것은 대방광불화엄의 표징에 다름없다. 광명변조 비로자나 불상의 부드러움 너머에 성스러움을 갖췄다. 그것은 목조불상 걸작이 가진 절대적인 미다.

〈사진작가〉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혹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불교인문학살롱

14 스즈키 다이세츠의 삶과 학문



▶**이광준 소장**은 동국대 졸업하고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았다. 한림성심대학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석좌교수,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 연구원,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서심리학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불교심리학, 태아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서구에 선불교 알린 세기의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츠의 삶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 박사는 1870년 일본의 가나자와(金澤)에서 4남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17세 되던 1887년에 이시가와(石川) 전문학교 초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제4고등중학교 예과 3학년에 편입학한 후 19세~20세에 노우토(能登)와 이시가와(石川)의 소학교 고등과 영어교사로 일을 하였다. 21세 되던 1891년에 교사직을 사직하고 도쿄의 와세다대학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에서 영문학 공부를 하던 중 가마쿠라(鎌倉)의 원각사 (圓覺寺)로 가서 이마키타코우센(今北洪川)으로 부터 선(禪)수행에 열중하다가 동경제국대학 선과 (選科)에 입학했다. 22세 되던 1892년, 이마키타의 뒤를 이어 샤큐소우엔(釋宗演)이 원각사 관장으로 취임하자 계속해서 그로부터 선 수행에 열중하면서 불교, 서양철학 등에 관한 책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했다.

23세에는 샤쿠소우엔이 미국의 시카고 만국종교회의에 출석하게 되자 그 강연 원고의 영역을 담당하고, 25세에는 접심(接心)으로 견성(見性)을 인가받았다. 이로 보면 박사는 어학과 선도에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27세가 되던 1897년 샤쿠소우엔의 추천으로 미국 시카고 교외의 오픈코트 출판사의 폴 캐루스에게 가서 잡지편집과 〈노자도덕경〉의 영역들을 도와주면서 그의 문하생으로 11년간 머물렀다.

1900년에는 〈대승기신론〉을 영역해 출간함으로서 학자로서의 그의 존재는 구미학계의 일원으로 각인됐다. 1905년에는 샤쿠소우엔의 미국 강연을 통역하며 동부지방을 순회하고 계속해서 〈대승불교개론〉의 명저를 영국에서 출판하였으며 이듬해인 1908년에 미국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거쳐 이듬해 4월에 고국을 떠난 지 14년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귀국하고 곧 학습원(學習院)과 동경제국대학 강사로 영어를 가르치고 40세 되던 1910년 학습원 교수가 됐으며 41세되던 1911년에 베아트리스 레인과 결혼을 하였다.

1914년에는 도쿄에서 영국인 로버트슨 스코트가 운영하는 〈뉴 이스트(New East)〉 지에 선 논문을 연재하기 시작하고, 51세 되던 1921년 교토의 오오타니(大谷) 대학에 초빙되면서 이때부터 간신히 불교학자로서 영문잡지 〈이스턴 붓디스트〉를 창간하는 등의 본격적인 연구생활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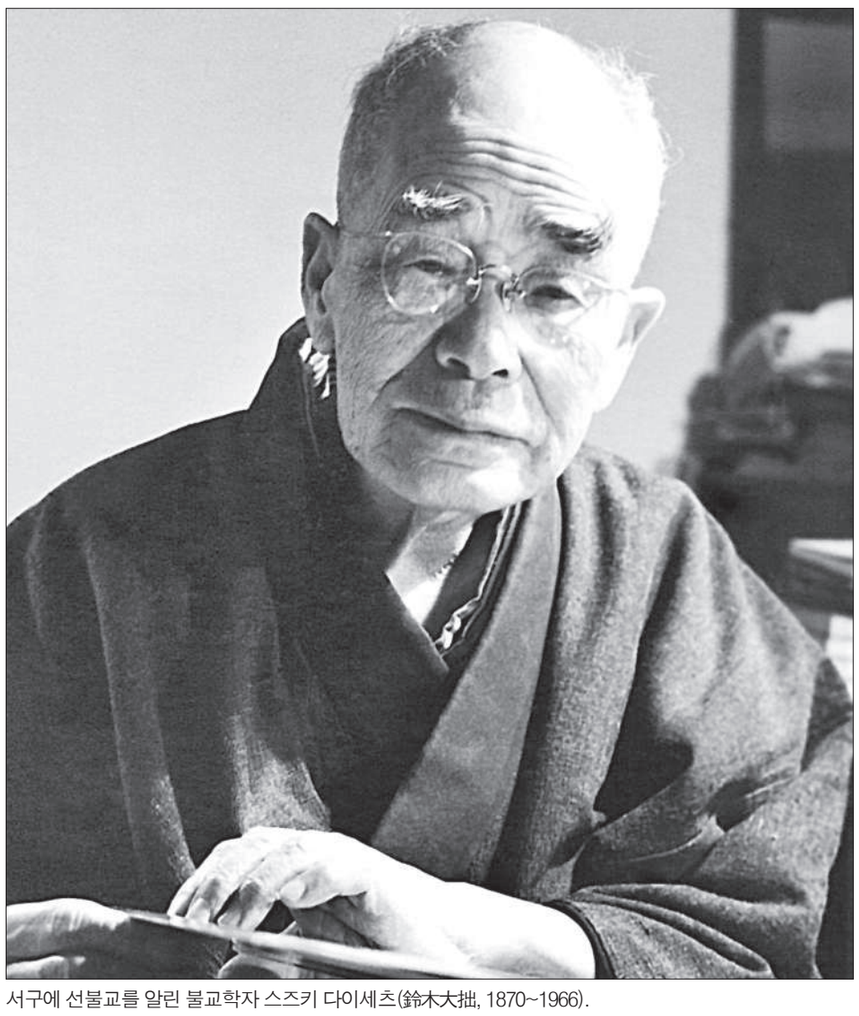
63세가 되던 1933년이 이르러 동 대학에서 〈능가경의 연구〉로 문학박사의 학위를 받고, 1936년에는 외무성 촉탁 교환교수로 영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선과 일본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귀국했다. 1946년에는 키타가마쿠라(北鎌倉)의 동경사(東慶寺) 산 위에 자신과 부인의 장서들을 모아놓은 '마츠오카 문고(松岡文庫)'를 설립하였다.

1949년 일본 학사원(學士院) 회원이 됐으며 문화훈장을 수여받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 록펠러 재단의 위촉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시카고 등의 여러 대학에서 불교철학을 강연했고, 1952년까지 하와이, 콜럼비아, 클레아몬트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다. 84세 되던 1954년에 콜럼비아 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1955년에 후루다쇼우킨(古田紹欽)이 편집한 〈스즈키 다이세츠 선집〉(전26권)으로 아사히(朝日)문화상을 수상했다. 박사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콜럼비아 대학과 케임브릿지, 하버드 대학 등에서 강의를 계속하다가 90세 되던 1960년 오오타니 대학(大谷大學)이 주최한 90세 축하연에 참석하고 가마쿠라(鎌倉)의 문고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이후 96세가 되던 1966년을 일기로 별세했다.

스즈키 다이세츠의 심리선관

박사는 말한다. 종교는 어떠한 종교이든 '아(我)'라는 것은 없애야 한다. '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아'를 없애버리면 거기에 참다운 종교의 빛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선가에서는 교외별전(教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교외별전과 불립문자라는 것을 오늘날의 철학자나 종교자들이 사용하는 말로서 표현하자면 신비적 체험이 된다. 가르침 외에 따로 전했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은 있으나 그런 것들에 의하지 않고 따로 석존의 정신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외별전, 불립문자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달마가 전한 것이다. 중국의 불교사에 있어서 선종은 교외별전이기 때문에 선종에는 공안(公案)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평생 선불교 연구와 전파에 힘써
선적 표현, 심리학적 관점서 전달
영문저작 통해 서구에 불교 알려
"선, 체험 통해 체득 가능" 강조



서구에 선불교를 알린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

신비적 체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 새로운 운동이 생겨나는 근원은 아무래도 주지주의가 아니라 신비적 체험이라야 한다. 신비적 체험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의 마음의 작용에는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체험이 있다. 그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이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체험에 의해 그 자체도 변한다. 그래서 생명이 흐른다.

〈능가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교의 본체(本體)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에는 종통(宗通)과 설통(說通)의 두 가지가 있다. 종통이란 신비적 경험이며 설통은 논리적 설명이다. 그래서 종교에는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언제나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것들이 꼭 병행해가지는 않는다. 자기가 출발점이 되고 아울러 귀착점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 자신의 주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선의 극치는 심리적 방면에 있어야 한다. 즉, 신비적 체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심리적 체험에 선의 생명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선의 근본이다. 그것이 이른 바 교외(教外)이다. 다시 말하면 선은 언제나 자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해석할 때 설명을 심리학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심리학으로 본 선이라고 말한다.

스즈키 다이세츠의 학문

박사의 저술목록에는 저작과 역본을 합하면 〈선(禪)의 연구〉를 비롯한 백여 종의 저술이 있으며, 영문저작으로는 〈대승기신론〉을 비롯한 30여 종의 저술이 있다.

박사의 저술에 속하는 이러한 책들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박사의 선 체험의 탐구이다. 〈자력과 타력〉 등의 정토진종의 교리를 쓰면서도 선사상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달마 연구에 있어서도 선 경험에 입각한 사상사를 쓰고 있다. 박사는 일본 선을 사상적으로 관찰할 때 △도겐(道元)의 선 △하쿠인(白隱)의 선 △반케이(盤珪)의 선 등 세 가지의 사상적 유형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심(無心)을 논한 연구에서는 무심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고는 아무래도 그림속의 떡 같은 것으로 그 사상의 근저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적 영성(日本的靈性)〉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의 종교적 체험의 세계를 묘사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제의 기본사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중국 선사상에 깊고 그윽함을 더해 놓고 있다.

말하자면 박사의 논설은 선은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몸으로 규명하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 사상을 본다고 하는 심리선적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한편 스즈키 박사의 세계불교사적인 업적은 영문 저술로 서구인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저술 혹은 강의로 수 없이 많은 발표의 기회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즈키 박사는 그의 저서 〈선(禪)〉에서 말한다. 선은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 표현에 변화가 있는 것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선이 무엇인지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중국문 또는 일본문적 표현 그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문의 선(禪)은 그 표현법에 있어서 고래의 '선록(禪錄)' 그대로의 것과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선의 견해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은 중국에서 발전하고 완성된 영성적 산물이다. 그래서 중국문의 표현법, 중국민족의 심리적 특성위에 선의 묘처(妙處)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그것을 다른 민족의 표현법으로 옮겨 놓으면 그 묘처는 충분히 맛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마음을 넓혀서 가슴을 열고 이색(異色), 이질(異質)의 문화이건 정서적인 문제 같은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스즈키 박사는 선(禪)도 또한 종래의 형식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원문의 묘처, 장점이 희생되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먼저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안목으로 서구에서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선사상을 저술해 나가는 스즈키 박사의 접근방법은 서구인들 특히 서구의 심리학자들의 눈에는 인간, 특히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에의 관심은 국제화되어가는 계기를 맞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1957년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열린 에릭 프롬, 스즈키, 드마르티노의 '선과 정신분석' 학술회의, 선에 대한 융(C. G. Jung, 1875~1961)의 심리학적 평가 등인 것으로 세계의 지식인들 특히 심리학계나 정신의학계의 학자들 중심으로 세계화되어 가는 것이다.

예컨대 융(C. G. Jung)은 스즈키 박사의 〈선불교 개론(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최근 수십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살아있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스즈키 다이세츠의 선불교에 관한 저술이다. 스즈키 박사는 선을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술을 통해 독특한 표현방식을 개발했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융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독특한 표현양식'에 있는 것으로 즉 선적표현을 심리학적 안목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하듯이 이러한 개념을 융은 정신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시키면서 세계의 분석심리학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생사와 열반이 허공꽃과 같아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㉗ 육해일망(六解一亡)

〈원문〉 그때 여래가 사자좌에서 열반승(涅槃僧)을 가지런히 하시고 승가리(僧伽梨)를 거두시고, 칠보로 된 책상을 끌어당기어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겁파라천이 바친 비단 수건(華巾)을 드시고, 대중들 앞에서 한 매듭을 만들어 아난에게 보이며 물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매듭이라 합니다." 아난이 대답했다. 이에 여래가 수건을 묶어 또 한 매듭을 만들고 거듭 아난에게 물었다. 아난은 또 매듭이라 대답했다. 부처님은 매듭을 여섯 매듭을 만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섯 매듭이 같지 아니하나 한 개의 수건에서 만들어졌으니 너의 육근도 그러하여 필경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이 생겼느니라. 여섯 매듭을 풀어버리면 하나라는 것도 없어지느니라. 네가 무시로 마음의 성품이 미치듯 어지러워져 알고 보는 것이 허망하게 일어나고 일어난 허망이 쉬지 않기 때문에 견(見)을 피로하게 하여 진(塵)을 일으키나니 마치 눈동자가 피로하면 허공꽃이 맑고 정명(精明)한 데서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일체 세간의 산하대지와 생사 열반이 다 피로해져 생기는 허공꽃과 같느니라.

〈강설〉 〈능엄경〉 5권의 대의를 '육해일망(六解一亡)'이라고 요약해 말한다. 여섯 매듭이 풀어지면 하나도 없어진다는 뜻인 이 말은 육근(六根)을 매듭에 비유하여 번뇌를 유발하는 육근의 매듭이 풀어지면 여래장묘진여성에 한 매듭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부처님이 열반승을 가지런히 하고 승가리를 거두고 칠보로 된 책상을 끌어당겨 책상 위에 있는 겁파라천이 바친 비단 수건을 들고 대중 앞에서 수건을 묶어 매듭을 만든다. 열반승은 몸의 하반신을 감싸는 속옷이고, 승가리는 대가사를 말한다. 야마천을 겁파라천이라고도 한다. 야마천왕이 부처님께 첩화건이라는 긴 비단 수건을 바쳤다 한다. 차례로 여섯 매듭을 묶어 놓고 아난에게 그것이 뭐냐고 묻는다. 이는 수건은 하나인데 매듭은 왜 여섯 개라고 하느냐고 일부러 넌지시 묻는 것이다. 매듭은 여섯 개가 묶였지만, 수건을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맺은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섯 번째 매듭까지 생긴 것이다. 여섯 번째 매듭을 첫 번째 매듭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여섯 매듭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한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맺은 차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섯 매듭이 차례로 생겼지만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한 장의 수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육근(六根)도 그러하여 필경 같은 것 가운데서 필경 다른 것이 생겼다고 하였다. 낱낱의 육근이 그렇다는 말이다. 본래 여래장묘진여성은 같은데 육근이 제각기 달라진 것이, 수건 한 장에 여섯 번의 매듭이 맺힌 것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에도 하나에서 왜 하필 여섯 매듭이 맺혔느냐는 속뜻이 숨어 있다. 여섯 매듭이 되어 이 매듭은 저 매듭이 아니라는 등 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섯 매듭을 그대로 두고는 하나로 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매듭을 다 풀어 매듭이 남지 않게 되면 "이 매듭이다. 저 매듭이다" 할 피차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라고도 할 것이 없으니 매듭이 다 풀어지면 아무 시비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육해일망(六解一亡)의 대의가 이것이다. 여섯을 의지해 하나가 있으며 여섯이 없으면 하나라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여섯 매듭이 육근에 비유된 것이라고 말해 왔으나 매듭을 맺거나 푸는 순서로 말할 때는 육근에는 생기는 순서가 없고 푸는 순서가 없으므로 여섯 매듭이 하나 하나 육근과 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육근을 통해 일어나는 작용이 지견(知見)인데 부처님이 아난에게 '네가 무시로 심성(心性)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지견을 허망하게 일으켜 견(見)을 피로하게 하여 진(塵)을 발한다고 하였다. 진을 발한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킨다는 말이다. 마치 눈동자가 피로해지면 맑고 밝은 데서 까닭 없이 허공꽃(空華)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래장묘진여성에서 육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 세간의 산하대지와 생사와 열반이 모두 눈이 피로하여 생긴 허공꽃과 같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소리·호흡·언어경로 통한 보시바라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㉗ 보시바라밀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차이를 느껴본다. 중간의 적멸처는 무겁게 느껴지고 양쪽의 적멸처는 가볍게 느껴진다. 그 차이를 지각하면서 중간 적멸처에 머물러서 양쪽 적멸처의 상태를 비추어보고, 양쪽 적멸처에 머물러서 중간 적멸처의 상태를 비추어본다. 소리 경로에서 세워지는 두 개의 간극을 인식하게 되면 듣는 의식이 제도된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들음으로써 행하는 보시바라밀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호흡 경로를 제도한다. 코의 간극은 미심과 중황, 중황과 옥침 사이에서 세워진다. 미심과 중황 사이에서 인식되는 공간 감각과 중황과 옥침 사이에서 인식되는 공간 감각으로 호흡 경로의 간극이 세워진다. 나선 호흡으로 미심에서 옥침까지 숨을 들이쉬면서 미심과 중황, 중황과 옥침 사이의 공간을 들여다본다. 미심과 중황 사이에서는 텅 빈 공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중황과 옥침 사이에서는 가볍게 억제된 느낌을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반복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두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감각을 비교해 본다. 서로 다른 감각이 뚜렷하게 구분되면 두 감각이 서로를 비춰보게 한다. 들숨의 자극감이 중황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중황 자리에서 드러나는 맑은 공간을 인식한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미심과 중황 사이의 텅 빈 공간을 인식하고 중황의 맑은 상태를 인식한다. 중황과 옥침사이에서 억제된 느낌을 인식한다. 세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감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들여다본다. 중황을 중심으로 삼아서 미심 쪽과 옥침 쪽을 함께 바라본다. 맑은 공간이 텅 빈 공간과 밋밋한 공간을 양쪽으로 마주 보고 있으면 코의 간극이 세워진 것이다. 코의 간극이 세워지면 호흡 경로가 제도된 것이다. 코의 간극을 주시하면서 호흡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인식되는 안팎의 경계를 비춰본다. 이것이 호흡 경로를 통해 보시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언어 경로를 제도한다. 언어 경로의 간극은 호흡과 발성을 통해 세워진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호흡을 들이쉰다. 백회와 중황 사이의 공간에서 빽빽하게 억제된 느낌을 인식한다. 마치 기둥이 세워진 느낌이다. 이 기둥을 무념주라 한다. 'ㅈ' 발성으로 시상 3뇌실을 길게 울려준다. 혀의 중간부위를 활용해서 입천장을 "지~~~~!" 하면서 길게 울려준다. 발성이 끝난 다음에 3뇌실에서 형성되는 텅 빈 공간과 생각이 쉬어진 자리를 함께 인식한다.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주를 인식하고 발성이 끝난 다음에는 텅 빈 공간과 무념을 함께 인식한다. 무념주와 텅 빈 공간, 무념처가 함께 인식되면 언어 경로의 간극이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어 경로가 제도된 것이다. 무념주와 텅 빈 공간, 무념처를 활용해서 경계들을 비추어본다. 이것이 언어 경로를 활용해서 보시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몸의 감각을 제도한다. 안 몸은 뇌와 척수에서 공간 감각으로 인식한다. 바깥 몸은 피부에서 촉감을 통해 인식한다. 몸의 간극을 인식한다. 살갗 수행으로 바깥 몸을 인식한다. 살갗 호흡과 살갗 관법으로 말초신경을 순화하면서 바깥 몸의 텅 빈 감각을 인식한다. 나선 호흡으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안 몸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뇌와 척수를 관통하는 무념주의 기둥을 인식한다. 무념주의 기둥과 살갗의 텅 빈 감각이 서로를 마주 보게 한다. 안 몸과 바깥 몸 사이에서 간극이 세워지면 몸의 감각이 제도된 것이다. 안 몸과 바깥 몸, 간극을 활용해서 경계들을 비춰본다. 몸의 감각을 활용해서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㉗ 지혜의 실상

사실은 전할 게 없다

침묵만큼 좋은 지혜는 없다. 그러나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틈이 너무 없다. 그렇다고 없는 문을 만들 수도 없다. 난처하지만 난처하다고 할 수 없어 입을 열어버린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네가 바로 부처다" 세 사람이 마주한다. 그가 어리둥절한 사이 엉뚱한 자가 낚아채 버린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를 쫓아버린다. 언제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진다. 두 사람이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항상 아닌 그 자가 먼저 나타나 훼방을 놓는다. 그런데 훼방을 놓는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자를 자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는 실재하는 실체가 아니니 쫓아낼 수도 없다. 그 스스로가 나타나야 한다. 물질과 느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가 재빠르게 듣고 알아버려야 한다.

쏜살같이 물질에 속한 어떤 이름과 모양도 내가 아님을, 느낌에 속한 어떤 자극도 내가 아님을, 의식 속에 피어나는 수많은 분별심도 내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행위 없는 평온함에 안주한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선정도 아니며, 대상이 사라지는 해탈도 아니다. 어디에도 속하지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평온이다. 구름이 걷히고 나면 해가 나타나듯 본래 있는 밝음이다. 무엇을 더 보기 위해 더 밝힐 필요가 없다. 개체의 주관적 세계가 사라지고 인연 그대로의 세계가 나타나면, 그 속에는 주인도 객도 없이 그저 빠르게 흐르는 허상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일체 외물의 자성은 모두 자성이 아니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혹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사실상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네. 그것이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안팎의 일체 경계상에서 지혜가 빛나며 환영이 생겨나지 않네. 이로부터 차례대로 삼해탈문을 거쳐 이른바 지혜를 증득하지만 그것 역시 얻을 수 없는 것이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보거나 급하게 서둘러 행하거나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허상에 묶인 삶을 살게 된다. 허상은 가질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애만 태우는 짝사랑 같은 것이다. 허상은 상상하면 현실이 될 것 같지만 온다고 온 것이 아니고 갔다고 간 것이 아니다. 상상이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상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나의 자아라는 것을 올바르게 성찰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병 탓이다. 태어나서 자신이 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려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오온이 보고 듣는 모든 감각기관과 인식작용들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일체인 십이처가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사실적이다. 이때 사실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그 일어나는 순간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오온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일어난 일에 대해 분별한다면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또 다시 알음알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짓은 분별하여 생각하여도 거짓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에 대한 앎이다. 이 자에 대한 앎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이다. 자신은 눈병과 귓병이 있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리 알려주어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는다. 상대가 일러주는 말과 자신이 판단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어려움은 눈병과 귓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4호 | 17 | 전면광고

세상의 모든 향기 중에 가장 훌륭한 향기가
세 가지 있으니, 첫째가 지계의 향기요,
둘째가 배움의 향기요,
셋째가 보시의 향기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부산 •대지 : 200평
•건평 : 50평, 외
•시내산 및 주차가능 •매가 : 가격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450평
•건평 : 50평, 외
•시내, 주차가능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9천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밀 양 법 당

• 밀양터미널앞 2층 60평
• 전세 : 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 : 3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 대구 동구 신암동
• 대지 : 80평
• 1층 요사 , 28평, 방6개
• 2층 법당 26평
• 지하공양간 43평, 방4개
•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0-3501-523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찰(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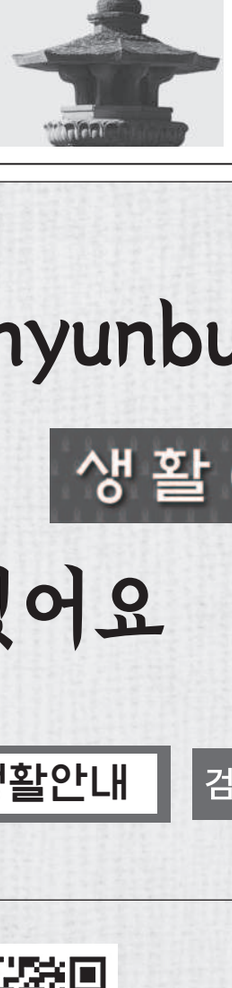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불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토굴 (촌집)
• 윗채 15평 , 방 2개,
마루 아래채 12평, 방 2개, 창고
• 건물주인 : 비구니 스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미길 23
• 매매 : 3천5백만원
• 특징 : 허름한 시골 촌집,
아궁이 불지펴서 난방

대리인 : 010-2367-008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3억 5천만원

010-8411-1217

포교원 안내

• 통영시 사거리
• 땅 60평 , 건평 36평 2층 건물
• 3층석탑 , 석등
• 마당주차 6대
•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완도군 군외면 당인3길 93
• 총평수 200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요사체 35평, 25평(두채)
• 가격절충
• 서경보 스님 주석하셨던 사찰

010-5635-9499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대지 155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1층
• 가액: 9억 (절충가능)

010-6760-8320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10분 거리
• 종교 계획관리 730평, 대지 250평, 요양부지, 요양원 토목공사 완료 1000평, 차고, 목조단청대웅전 50, 산신각 20평, 찜질방, 휴게소, 주방 종각 , 연못 잔디광장, 각종 탑, 진시사리, 12m 해주관음, 양쪽 대형용, 접견실방 5개, 남녀화장실 3, 요사채 4동,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1899-0047
010-5883-2255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산신각 불사 안내

• 소재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 사찰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기도도량 문성암
• 소개 : 덕룡산은 초의선사 출가도량이며, 백제의 고찰 불회사가있다.
• 시주: 설판시주 5천만원
동참시주 1,000 만원 (5가족)
동참시주 500 만원 (10가족)

061-337-0711 (문성암)
010-2354-9908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7천만원

010-4506-5302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44호 | 18 | 전면광고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 놓고,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축원을 한들, 어찌 무거운 돌이 물 위에 떠 오를 수 있으랴.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주 명리 구성학

- 1대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 찾집하실 보살님!
- 대전스님



010-9497-3476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집으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대금
- 밀양 : 영원사

010-3156-2211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절에 계실 처사님 구함

- 절에서 계실 처사님, 행자님, 스님하실 분 구함
-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법문

법사를 초청하고싶은 사찰은 전화를 주시면 유익한 법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2871-6668 청효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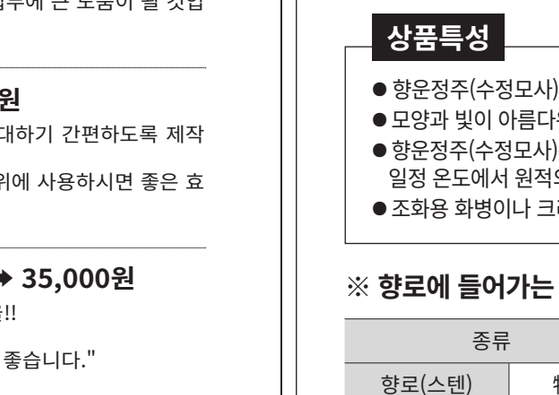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⑫ 연잎, 연꽃차

혈액순환 돕고 간과 폐에 좋은 차

연꽃은 더러운 진흙 연못 속에서 깨끗한 꽃을 피운다고 하여 선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불교에서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속세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상징한다고 하여,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이다.

꽃말은 군자, 청결, 순결, 배신, 청순한 마음 등이며, 다른 이름은 연이고, 생약명은 연자심(蓮子心), 연자육(蓮子肉)이다.

연꽃과 수생식물 중 부엽식물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로서 다년생 수초이다. 키는 1m 정도 자라고, 연잎은 하엽체(荷葉體)라고도 불린다. 꽃은 연한 홍색 또는 흰색으로 7~8월에 꽃줄기 끝에서 대형 꽃이 1송이 피는데 지름이 15~20cm이다. 이용부위는 뿌리, 잎, 꽃, 종자이며,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차 또는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연자육에는 전분, 라피노스(raffinose), 누시페린(nuciferine), 노루누시페린(nornuciferine), 노르마르메파빈(norarmepavine)이 있고, 잎에는 로메린(roemerine), 누시페린(nuciferine), 노르누시페린, 아르메파빈(armepavine), 프로누시페린(pronuciferine), 리리오데닌(liriodenine), 아노나인(anonaine), 퀘르세틴(quercetin) 등이 있다.

연자육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떫다. 연근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 잎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쓰다. 연자육은 신장의 기운을 이롭게 하여 유정을 멈추게 한다. 연자육은 오래된 이질 설사를 멈추게 하고, 불면증에 도움을 준다. 연근은 열을 내리고 어혈을 제거하며 독성을 풀어준다.

연잎은 수렴작용과 지혈작용을 하고 야뇨증에도 효과가 있다. 연잎은 건조한 폐를 순환시켜 니코틴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꽃은 혈액순환을 돕고 풍습(風濕)을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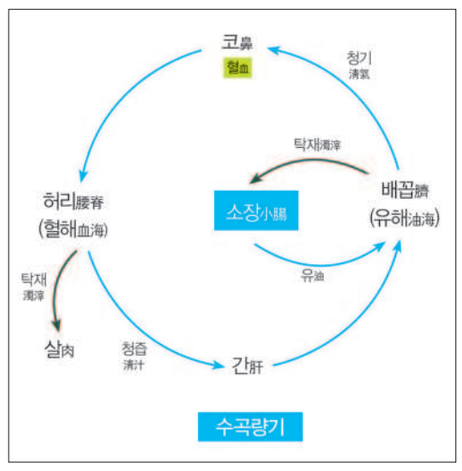
마음 · 기(氣)작용

연꽃은 간(肝)과 폐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연근은 구멍이 있어서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태음인은 잘 먹고 흡수를 잘하지만, 땀으로 발산(發散)을 잘해야 한다. 연꽃은 기본적으로 태음인의 발산을 도와주는 꽃차이다.

연꽃은 혈액순환을 돕고, 지혈의 효능이 있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血海)가 되고, 간은 혈해의 맑은 즙을 빨아들여서 원기를 보익하고, 기운을 고동하여 배꼽의 유해를 모이게 한다.

요척(腰脊)에 있는 혈해는 피가 사는 집으로 혈해의 맑은 즙이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연꽃은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연잎은 건조한 폐를 순환시켜주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수곡온기에서 니해의 맑은 즙이 폐(肺)의 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연잎은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의 장국으로 폐당(肺黨)의 수곡온기가 적은데, 연잎과 연꽃은 기본적으로 수곡온기의 기 흐름을 잘 흐르게 한다.

제다 및 음용

연잎은 앞뒤로 잘 씻어서, 가로×세로 1.5cm, 1cm 자른다. 찜기에서 증제 후 유념을 한다. 고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연꽃제다는 꽃을 7~8월에 채취하여, 꽃잎과 연자방, 꽃술을 분리한다. 꽃잎은 5mm 정도로 자르고, 연자방은 2mm 정도로 자른다. 중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고, 고온에서 맛내기와 가향 덖음으로 완성한다. 연잎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연잎차 3g을 100℃로 끓인 물 50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려낸 다음, 연꽃에 부어 함께 우린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연꽃차의 향은 여름철 풀향과 과일의 향이 났다. 1차 시음에서는 청포도의 맛이 스며들며 달콤함이 느껴지고, 과일의 신 맛도 느껴졌다. 2차 시음에는 약간 떫은맛이 혀에 남고, 압 안이 화함이 있다.

다른 태음인 시음자는 첫 한 모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은은한 향이 다가오지만, 그렇게 당기는 맛은 아니었다. 향이 깊어지면서 매운 맛이 나고는 가벼워졌다. 2차 시음에서는 머리가 띵하면서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1차 시음에서는 연꽃 차향은 묵직한 향의 느낌이 다가오고, 입안 끝 쪽에서 화한 느낌이 오래 남아서 맴돌았다. 2차 시음에서는 목안 쪽에서 잠시 시원함이 느껴지고, 떫은맛이 약하게 느껴졌다.

연꽃차는 은은하면서도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 태음인 한증에는 잘 맞고, 태음인 열증이나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에게는 다가오는 꽃차는 아닌 것 같다.

음용 사례 (태음인, 여, 52세)

2021년 여름에 연꽃차를 처음 마시고는 그윽하면서도 산뜻함을 담고 있는 은은한 향과 달콤한 맛의 신선함을 잊을 수가 없다. 마음이 차분해 지면서 정신이 맑아져 입가에는 웃음이 저절로 났다. 잦은 스트레스로 평소에 소화불량이 심했고, 머리 두통이 심해 약을 자주 먹곤 했었는데, 연꽃차를 마시는 순간에는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경험도 하였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건강 365
② 골다공증

꾸준히 칼슘 섭취…지속적인 관리를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보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층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제가 요즘 들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이거 골다공증 아닌가요?" 하는 것과 "제가 골다공증을 진단 받았는데, 아픈 곳이 없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인거죠?"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골다공증과 통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골다공증(骨多孔症)은 한자 풀이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건물을 세울 때 골조가 약하다고 건물이 아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충격에 취약해서 쉽게 무너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 있다고 아프진 않으나, 뼈의 기본 골조가 약하다 보니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골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골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계에서도 '골다공증' 을 바라보는 시각이 '골다공증' 이라는 뼈의 상태보다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 라는 위험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Q. 골다공증은 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뼈는 낡은 뼈의 소멸과 새로운 뼈의 형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면서 골밀도가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고, 약물 복용 혹은 영양의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새로운 뼈가 잘 형성이 안 되거나, 뼈의 소멸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뼈로의 대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점차 뼈는 점차 약해지고 얇아지면서 골절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Q.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과 더불어 이에 대한 치료와 합병증 등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나아가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 부위에 골절이 되었나에 따라 단순히 삶의 질만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율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인 고관절 골절의 5년 생존율은 약 55%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인 70.3%보다도 낮고, 대표적인 소화기암인 위암(74.4%), 대장암(76.3%)의 5년 생존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한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남자는 하루에 800㎎, 갱년기 전 여성은 1000㎎, 갱년기를 지나면 1500㎎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영양을 잘 섭취하면 어느 정도의 칼슘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양은 우유 등의 유제품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권장량의 칼슘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칼슘제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칼슘 외에도 하루 800IU 이상의 비타민D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비타민D는 피부에 햇빛을 쬐면 비타민D가 합성이 되는데, 일주일에 2~3번, 30분~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D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외선 차단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밖에서 충분한 시간의 햇빛을 쬔다 하더라도 자외선이 차단되어 필요한 양의 비타민D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비타민D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해 비타민D를 섭취해줘야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칼슘과 비타민D의 복합체를 복용한다면 하루 기준치의 양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입니다. 아직까지 적당량의 운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3~4회, 30분 이상의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근력과 균형감각 등을 키워 낙상과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어 골형성과 골흡수의 작용을 통해 뼈가 튼튼해 질 수 있게 합니다.

Q.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골다공증을 진단 받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과 골형성을 촉진시키는 약이 있는데, 성별, 나이,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시행한 뒤 처방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도 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반응도 확인하고, 적절한 약물의 휴지기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이 어떤 것인지 예방과 치료를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생존을 위협하는 골다공증을 잘 관리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동길 거인병원 정형외과

거인병원
Geo-in Hospital
VERITAS LUX MEA
051)996.7000
동래사직운동장앞
어깨·관절·척추, 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230622-중-155173
현대불교신문과 협약에 따라
구독자 비급여 10% 할인 제공
민경범 마취통증의학과 | 김종열 신경외과 | 최홍준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윤동길 정형외과 | 박지혜 내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보호자·간병인 걱정없는 전병동&전병상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⑲ 직장서 명상습관 만들기



▶한줄 요약
명상이 습관이 되려면 무엇보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

1초의 멈춤도 좋은 마음챙김이다



최근 필자는 '제1회 직장인을 위한 하트스마일 명상 프로그램(이하 HST 프로그램)'을 2박 3일 동안 진행했다. 'HST(Heart-Smile Training) 프로그램'은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께서 2011년에 개발한 '하트스마일명상 2박 3일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조직에 특화해 맞춤형으로 개발한 기업형 명상 프로그램이다. 국내 연구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 명상과학연구소(Center for Mindfulness and Compassion)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컨설턴트로서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필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HST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팀에 참여했고, 최근 제1회 프로그램을 공동개발자와 함께 진행했다.

HST 프로그램을 마치고 1주일 후 동일한 장소에서 국내 D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여하는 'Time for Myself' 라는 2박 3일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Time for Myself'는 필자 회사에서 개발한 조직 내 리더들에게 특화된 마음챙김 기반 명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한 힐링을 넘어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리더가 되는 과정으로, 스트레스 경감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리더로서 자기인식 역량과 자기조절 역량 발현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 발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ST 프로그램은 직장을 다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Time for Myself'는 특정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디지털 디톡스와 더불어 몸과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서 실내와 실외에서 진행됐다. 아침 7시에는 몸을 깨우는 움직임 명상과 더불어 고요히 마음을 머무는 정좌 명상도 1시간 정도 야외에서 했다. 둘째 날에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오감을 깨우고 자신의 내면도 탐색해보는 자연명상도 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명상홀과 숙소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침묵과 함께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해본다는 것이 참가자 대부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일 동안에는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편안하면서도 고요하게 머물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쉼,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편안한 과정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호흡, 아침을 깨우다 시간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명상, 묵언수행, 종소리에 멈춤, 잠시 말없이 걷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고요함, 평화, 안정감이 충만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남긴 후기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전쟁과도 같은 일터에서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들과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동기부여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았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이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누구나 매일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명상, 특히 마음챙김 명상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명상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상이 습관이 되려면 무엇보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루 30초 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잠시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자.

"편안한 자세로 허리는 펴고, 가슴은 활짝 열어준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는 심호흡을 3번 한다. 숨을 쉴 때마다 몸이 팽창하고 수축되는 것을 바라보라. 편안하게 존재하면서 호흡하는 이 순간만을 바라보라. 30초 동안 오직 호흡하는 몸을 바라본다."

어떤가? 이 정도면 명상이 쉽지 않은가? 일과 중 매일 30초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의 호흡만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명상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30초 호흡 명상'은 필자가 가장 추천하는 명상 습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명상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업무 시작 전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휴식시간 또는 점심시간 전후도 좋다. 자신만의 명상 루틴을 만들어 습관화해야 한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습관을 만들어보자.

직장인 마음챙김 참가자들
단기간 명상 프로그램 이후
평소 삶에서 실천법 궁금해
어려워 말아야 습관화 가능

둘째, 미소를 지으며 현재를 보는 습관을 가져라. 직장에서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매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온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방황할 때 그러한 생각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주의를 돌려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미소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이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으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긍정적 마인드셋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때로는 미소가 마법과도 같은 힘을 주기도 한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꼬리를 살짝 내리면 둥근 햇님과 같은 미소가 지어진다. 지금 바로 미소를 지어보라.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미소는 가장 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셋째, 매순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힘을 키워라. 연구결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의 효과성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시프트태스킹(shift-tasking), 즉 업무 전환이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더 많아지며 집중과 창의성이 약화된다.

마음챙김 면상 훈련은 멀티태스킹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음챙김 훈련은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밥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는데 온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일할 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힘. 한 순간에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하는 힘, 그것이 경쟁력이다.

넷째, 1초의 멈춤 습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은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업무에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그만 변화에 둔감해지고 주의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는 바로 이렇게 약해진 주의력 때문인 경우가 많다.

명상을 통한 의도적인 알아차림 훈련은 매일 경험하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마음챙김 알리미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뇌를 깨워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례로 스마트폰에 일정 시간이 되면 진동이 울리게 하여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아니면 명상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올 때 즉각적으로 받는 대신에 1초간의 멈춤을 갖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마음챙김 알리미이자 습관이 될 수 있다.

틱낫한 스님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에서는 15분마다 동작과 생각을 멈추는 종소리를 울린다. 무의식에서 깨어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종소리다. 일상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5분마다 자신이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어라. 스트레스와 고통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는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소진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은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비판단적 알아차림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와 통증, 질병에 직면해 기존 건강 및 의료 돌봄 시스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주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조차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 준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는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그때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자각하는 마음챙김 훈련만으로도 내적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나 고통을 자각하는, 즉 알아차리는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살피는 습관을 가져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자기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고 한다.

만약 손가락이 베이면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약을 바르고 밴드나 붕대로 보호하면서 치료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알아차리고 치유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친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배가 된다. 먼저 나에게 친절하자! 친절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중 하나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토) 23:15



남을위해 기도하라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해설을 통해 참회 발원하는 기도정진시간
본방송 (수) 14:00 재방송 (수) 22:30, (토) 07:3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44 호 현대불교
2023년 7월 19일(음 6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일체 생활을 닥치는대로 말려 놓고 가는것이 죽는길이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분명히 너 나는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진리의 길을 탐구하고 함께 가는 도반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고 앉았을 때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일체가 다 도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하신 그 뜻을, 또 사방을 둘러보시고 일곱 걸음을 뗀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본다면, 그때서부터 불교가 이루어졌고,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받고 공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삼라대천세계가, 아니 지금 말로 우주 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는 거요. 우주 천지의 근본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세상의 살림살이의 근본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 그러면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이라고 한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다든가 그런 것을 읽어 봤다든가 하는 예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부터 직결돼 있는 그 자체의 근본, 즉 우주 천지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니 그 근본을 깨쳤을 때는, 내 육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마쳤다면 그것과 직결돼 있는 외부의 모든 중생들도 더불어 같이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따가 질문하십시오.

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신 뜻은 '무공무색(無空無色)' 이니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뜻을 비유해서 사방을 둘러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발자국을 떼었을 때는 "네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바로 찰나의 생활이 여여하고 그대로 진리의 길이니라." 하는 그 뜻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은 말 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학식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어떠한 이름으로써 이론으로써 공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역대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고, 어디를 향해 지금 그대로 여여하게 걷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수화풍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일체 생명이 다 지수화풍에서 생겼고, 그 생명으로 인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무정물이나 또, 일체 생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사라지고 거기서 사라졌다가 다시 뜨고 하는 이 진리, 허공에 뜬 꽃잎 한 잎이 바람이 너무 세면 이지러지고, 또 어떠한 개체가 바람을 막아 주면 이지러지지 않고 이러다가 떨어지곤 하죠.

이 모두가 뜬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풀포기 하나 버리지 않고 같이하고 있다는 것,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또는 축생 하나 버리지 않고 무정물이나 식물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세계의 한 마음 속에 같이 항상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함께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으나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너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가 있긴 있는데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공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특출나게 꼭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같이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느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마디는 언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니, 앞으로는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는 질문하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 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어앉아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톡톡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 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도 죽어야 한다 하는 이유는 무조건 첫 번에 죽어야 나를 본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견을 해 가지고 내가 '나' 라는 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습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꿈에 부처님이 보이면 좋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한 귀신을 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바깥으로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온다는 발설을 하질 않나, 보면 보는 것대로 들으면 듣는 것대로 그것들이 변해서 돌아가서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논의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로 놓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비밀을 비밀로 둬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이 보이든 들리든, 내가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굴릴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이고 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첫째, 불법에 누가 되게 하고 둘째, 선원에 누가 되게 하고,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셋째, 자기한테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꿈에 가르치는 것도 생시에 가르치는 것도 둘이 아니게 항상 자기가 비밀로 두고 지키면서, 봐도 본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알아도 안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행을 해 보는 그러한 막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타심통이나 숙명통,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오신통에서 딱 벗어나면, 바깥의 이 다섯 가지 통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몸을 코치를 못 해요. 내 몸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 속에

☞ 22면으로 계속



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진리이다

☞ 21면에서 계속

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보이더라도 놔라, 들리더라도 놔라, 남의 마음을 알더라도 놔라, 과거를 알더라도 놔라, 내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놔라.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물리가 터져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실험하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러한 비밀의 문서다. 비밀 문이 나한테 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비밀 문이 나한테 있으니 내 문을, 없는 문 있는 문 다 놓고 그 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죽어야 하며 또 그렇게 비밀을 지키고 오신통에서도 벗어난다면 그때는 너나가 없이, 너 나는 틀림없이 있으면서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툼에 의해서 응신으로서도 막강하며 나툼의 화(化)함도 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체가 없어서 수만 명의 모습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응하는 대로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게, 산신을 원했으면 산신으로 보여 주고, 관세음보살을 청했으면 관세음보살로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러나 보여 준 것만이 아닙니다. 모습도 응해 주셨지마는 마음의 그 자비도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툼은 하다못해 곤충에서부터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나투며 화하면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한 발 내려디딘 보살행이니 보현등의 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화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래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는 그 말은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목신에도 응해 주시고, 지신에도 응해 주시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학식이 투철하든 말든,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어떠한 문제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응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한데 합쳐진 완성이며, 같이 돌아가는 완성이며,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데서 응해 주시며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손이 될 수 있고,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천백억화신으로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레가 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관세음보살로서 여러분 앞에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축생으로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며, 개 배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길이며 진리다. 한 가지 얻은 것은 진리를 얻었노라. 그 진리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없는 이름이 바로 길이며 진리니라' 하신 그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올바르게 자력 신앙으로서 우리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건가.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장 선사가 "너희들이 땅을 파도 아니 되고, 땅을 아니 파도 아니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고?"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도리를 앎으로써 농사를 지어서 일체 중생들에게 한 그릇을 가지고도 다 먹일 수 있고 그 한 그릇이 되남을 수가 있다 하신 것은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나오셔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의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 **어떤 게 똑똑한 것인가.**
>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자, 가섭존자는 얼굴의 미소로써 마음이 계합이 됐어. "나는 이 깨치지 않은 깨침, 이 법을 너한테 전달하노라." 쉽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꼭 말을 해서만이 아는 게 아니라, 한 말을 했을 때 봇장이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기' 하면 저 전구만을 보지 마시고 그 전력을 보신다면 아마 밝음을 만들어 놓은 저 전구와 갓을 똑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 전구라는 물질만 보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저 밝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아시지, 전력이 오고 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전력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여러분한테 전력이나 광력이나 또는 자력이나 통신력이 다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놔서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며 일체를 놓고 비밀을 지켜야 하며, 셋째도 죽어야 하며 그 비밀로서 나투는, 응신으로서 나투는 법을 증득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리가 터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학식으로만 배운다면, 유치원에서부터 주욱 배워 나가면서 박사 학위를 따서 거기서부터 또 자기의 소임을 맡아서 해나가는 데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지금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은 남의 지식과 남의 학식과 남이 만든 모든 방편을 머리에 넣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증득한 뒤에 재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먼저냐? 여러분 마음이, 마음 내기 이전이 마음이죠?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체 안에, 오장육부 안에 악업 선업이 뭉쳐서 중생들이 돼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니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그 참나라는 중심의 참자기는 더하고 덜함도 없으며 당당하며 꿋꿋한 것입니다.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업 선업이 자꾸 농락을 해서 그것을 뒤집어쓰고 맞고 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저 꿈을 조금만 잘못 꿔도 '아이구, 오늘 뭐가 잘못되려나 보다.'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도 '아이구!' 하고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 자체의 운전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아, 그걸 조금만 돌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지.' 아, 이러면 금방 돌아갈 거를, 그거를 노상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날더러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말하기도 싫고 이러한 병과가 있습니다." 그러거든. 왜 그걸 내게 말을 합니까, 예? 일체의 운전수는 당신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서 당신 앞에 닥치는 대로 운전을 잘하고 가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묻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스님께서 다 놓으라고 그랬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랍니까?" 이러신다면 내 한마디 해 드리죠. 도반들끼리 모이면 신랄하게, 문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리만큼 신랄하게, 법을 구하는 데는 서로 문답을 청하고 또는 토론을 하고 이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하는 데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데서 바로 체로 걸러서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리가 터지는 수가 많고 지혜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저런 건 저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스님은 다 놓으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랍니까?" 이런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음파를 나는 집어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내 말의 음파를 듣고 먹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쪽에서 말을 했으면 그쪽에서 먹고, 그쪽에서 말을 했으면 이쪽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도 없이 통신이 됩니다. 무전통신이 왔다 갔다 하죠? 물이 없으면 전력이 없죠? 이 모두가 묘법입니다. 이 묘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거를 먹어 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먹어 버렸다면 그냥 무(無)죠?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끄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이 말을 하지 말랬는데, 그냥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여건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일러 주신 거와 같이 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이 진리니라. 그러면서도 너 나가 한 사이 없고, 뜬구름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면서도 그 속에는 분명 네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금방 말했으면서도 금방 먹어치워 없애 버리고, 물질은 변질돼 가도 뿌리는 영원하듯이. 우리는 이 뿌리의 영원함을 발견하고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는 요거 한 마디라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거기에 종합되는 겁니다. 일일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떠한 부분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이런 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모든 살아나가는 생활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으니." 하는 것도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듯이, 다 지켜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끼리끼리 장단 맞춰서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흥겨웁게 말입니다. 그러나 흥겨웁지만은 않습니다. 이 도리를 모르는 이상 끼리끼리 싸우고 뜯고, 쫓고 쫓기고, 이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 갔을 때 기독교인과 가톨릭교인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거는 어떤 종교의 이름도 포함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전체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불(佛)'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불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으니 모두가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말씀이 즉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지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알라신교니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이름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타력 신앙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 봐도 그렇고 저기 가봐도 그렇고 전부 맹종하고 있어요. 그림에 맹종하고 있고, 이름에 맹종하고 있고, 사람에 맹종하고 있고.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발견해서 그 재료를 마음대로 들이고 내면서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살라. 영원히 윤회에 끄달리지 말고, 이 우주의 진리를 시공을 초월해서 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89년 7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사교육 광풍에 멍드는 사회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대통령 '킬러문항' 언급에 입시 혼란
사교육 입시 효과 없애는 정책 필요
4살부터 유명 수학학원 다니는 현실
특목고 의대 · 로스쿨 진학도 막아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출산율에 영향
학벌주의 · 대학 서열화에 입시 지옥
균등한 교육기회, 누구나 주어져야
연기법 되새겨 함께 지혜 모색하자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문항(초고난이도 문제)을 배제하라. 킬러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지시해 입시 현장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평지풍파가 일었다. 킬러문항이 11월에 치르는 대학수능의 화두가 되었다.

수능시험 문제와 대학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수능 문제는 치밀한 상대평가의 구조를 지니며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영역에서 초고난이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 수능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별력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면도 있다. 쉽게 출제하면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킬러문항을 위해 학원에 가는 학생은 서울대나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1% 이내의 소수 학생으로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극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킬러문항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으니 입시전문 학원으로 떠넘기게 되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 반수생과 삼수생을 양산하여 재도전시키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한다.

자유 자본주의 국가에서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금지할 수가 없다. 다만 정부가 학교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받아도 입시에 효과가 없도록 입시정책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 학교 내신 성적의 반영이 그 일환이다. 한때는 학교에서 인성교육(봉사활동)과 독서교육을 매우 강조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려면 강남학군이나 특목고(과고, 외고), 자율고, 수도권 명문학교에 진학하면 손해다. 그러나 이 제도도 학교 간의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대학입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비율을 최소화하여 무력화되고 있다.

수능문제에서 고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면 강남학생과 특목고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많이 합격하게 된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이나 지방학교 학생들은 경쟁에서 열세다. 특목고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 입시를 동일 계열로 진학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의과대학과 로스쿨을 진학하는 입시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문대학교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진학해야 하고, 또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선행학습을 받아야 하고, 급기야 4세 아이가 5세에 입학할 수 있는 대치동 유명 수학학원 준비를 '닥수(닥치고 수학)'을 하고 있다. 5세 영재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영어 학습을 시키는 현실이다. 무한경쟁의 악순환이다.

계급 상승을 위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에 대한 욕망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학원가의 과장 광고에 의한 사교육 열풍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학벌주의 문화와 대학의 서열화, 특목고의 존치는 입시지옥을 만든다.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소외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린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만큼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교육부가 학원법이나 어린이보호법을 제정하여 사교육의 광풍을 진정시켜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연기적 존재로서 함께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공업 공동체라고 하였다.

가난한 이웃이 슬프고 힘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성장을 멈추고 만다. 지나친 경쟁과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마음을 모아 지혜를 찾아보자.

社 說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에 부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취임법회가 7월 12일 양주 청련사에서 봉행됐다. 지난 6월 27일 총무원장 공식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은 이날 법회를 통해 공식 취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상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확립할 것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또한 선거 공약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 △지방교구 자율 운영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재정 확립 등을 이행해 태고종 중흥의 기틀을 다질 것도 약속했다.

이 같은 취임사에는 태고종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 종단이자 대승교화종단으로 태고종을 발전시키겠다는 스님의 의지가 담겼다.

전국 3400여 사찰과 25개 교구, 5대 본사로 이뤄진 태고종은 종단 규모 면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잇단 내부 갈등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서열 5위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상진 스님은 취임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외연 확대를 통한 종단 위상 회복"을 강조했다.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 임명된 부장단들에게 종단 대사회 사업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강조한 것도 종단 위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진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내외빈 포함 2000여 명이 운집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종문에 들어온 이래 한자리에 종도들이 이 같이 모인 것은 처음이고 여기서 종단의 저력을 봤다"고 했다. 상진 스님의 종단 운영 기조는 '공심(公心)'이다. 종단 발전은 총무원장 혼자만의 원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종도들의 동참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대승교화종단으로서 태고종의 발전을 기대한다.

영국사지, 불교-유교 상생활용 기대한다

2012년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현장. 조선시대 서원터였던 곳에서 불교 관련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이 영국사의 옛 터임이 확인됐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해당 사역에 대해 추가 발굴을 실시해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의 명문이 기록된 고려 초기 고승 혜거 국사(899~974)의 비석 파편을 발견하였고, 이에 도봉서원이 고려 영국사터에 건립된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

본래 도봉서원의 복원을 진행하려 했던 만큼 유교 측과 불교계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입장 차는 크게 엇갈렸다. 입장 차는 지난 11년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10일 도봉구청을 방문해 오언석 구청장과의 논의 중 "불교의 역사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 영국사지가 불교와 유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영국사지(도봉서원)의 복원 및 활용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기실 조선시대를 숭유억불의 시대, 불교의 암흑기라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찌 역사를 분절시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인간에게는 변화하는 것과 지속되는 것이 섞여 있는 일상이 존재한다"고 했다. 변화와 지속, 두 구조로 역사를 이해한다면 조선시대에도 지속되는 신앙과 심성으로서의 불교와 변화된 통치 이념으로 유교가 상존했을 것이다. 수 차례의 발굴을 통해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제 불교와 유교가 상생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⑯ 송기원 작가의 '명상소설'들

'명상소설'이라는 피서

여주에 가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스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스님의 우란분재에 저는 어머님의 천도를 맡겼습니다.

스님의 염불에 따라 어머님의 신위가 연기로 사라질 때, 그 연기에 취해 배롱나무 붉은 꽃잎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랑이여, 저의 마음속 붉은 꽃잎은 언제 어디서 무슨 연기에 취해 떨렸을까요.

송기원의 '붉은 꽃잎' 전문이다. 필자의 졸작 〈염주〉에 인용했던 시편이기도 하다. 작가의 어머니가 작가의 투옥 기간 중 자살한 사실로 비춰봤을 때 이 시는 실제 벌어진 일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유추된다.

송기원 작가는 〈안으로의 여행〉, 〈또 하나의 나〉, 〈숨〉 등 자전적 구도 여정이 돋보이는 명상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송기원의 명상소설들은 마음의 감옥 속에 갇힌 자아를 방생(放生)하고자 어딘가로 떠나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화자의 발걸음은 인도 구석구석을 헤매지만 그가 정작 닿고자 하는 종착지는 마음이다. 〈안으로의 여행〉은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 화자가 본래면목(本來面目)를 찾는 곳은 라다크 지방의 레라는 왕국으로 가는 길이다. 화자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유년을 본다.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에게마저 버림받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화자는 '일체개고(一切皆苦)'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송기원 문학의 화두가 '상처'나 '고통'인 까닭은 그의 불우했던 유년기 때문이다. 최근작인 〈숨〉은 화자가 미얀마 명상센터에 가서 남방불교의 전통 수행을 통해서 먼저 죽은 딸(후아)의 영혼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 화자는 "나에게 '몸의 서른 두 부분을 바라보는 명상'이란 결국 늙은 괴물이 웅크리고 있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바로 그 문을 지나쳐서 늙은 괴물을 만나야 진정으로 딸과 하나가 되고, 딸의 실존의 흔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화자의 말마따나 기실 사람의 몸과 마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위빠사나의 가장 수승한 지혜일 것이다.

"자신이 순간마다 변하고, 그런 순간의 변화가 자신을 고통에 헤매게 하고, 그렇게 자신이 극미하게 분해되는 어지러움과 현기증밖에 아무것도 없는 과정자체가 바로 위빠사나의 지혜가 아니었으랴. 자신이 순간마다 변하는 과정이 바로 무상이고, 그런 순간의 변화에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느끼는 과정이 고통이며, 그런 순간의 고통 속에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무아가 아니고 무엇이랴"라는 화자의 독백은 큰 울림을 준다.

무더운 여름이다. 명상을 통해서 더위를 잊거나 명상소설을 읽으면서 더위를 잊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템플스테이
TEMPLESTAY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The 9th
Buddhist Design
Competition

~ 2023. 08. 31

공모주제 불교 문화상품

- 산사의 아름다움과 템플스테이를 상징하는 문화상품
- 제시한 템플스테이 관련 디자인을 활용한 문화상품
- [제시 디자인] 템플스테이로고, 단청, 꽃살문, 사천왕, 귀면 디자인

공모분야 문화상품 및 명상용품

- 관광기념품, 공예품, 생활소품, 여행용품, 문구사무류 등 디자인 상품
- 제작가 5만원 이하 (패키지 및 설명서 포함)의 단품 또는 세트 상품

공모기간 2023년 08월 31일까지 접수

공모자격 성인 (개인 또는 기업) 누구나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기업
- 1인 (팀) 당 최대 5개 작품 출품 가능

작품제출

구 분	서류제출	실물제출
일 정	~8월 31일 까지	9월12일(화)~9월19일(화)까지
대 상	공모전 참가자	서류심사 통과자
방 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우편,직접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접수방법 접수처 및 작품제출 형식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templestay.gcontest.co.kr)
- 공모작품 실물사진 추가제출
- 상품설명서 추가제출
- 파일명에는 '작품명_이름'만 작성

시상내용 총 16개팀 시상 | 총상금 1,100만원

상 격	시상수	시상금
대 상	1	5,000,000원
최우수상	1	2,000,000원
우 수 상	2	1,000,000원
특 별 상	2	1,000,000원
입 선	10	소정의 상품

시상/전시 2023년 10월 중

문 의 처 공모전 사무국 & 공모전 홈페이지

-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홈페이지 Q&A게시판
- 공모전 사무국 : 02. 6953. 1994 | mssong@gcontest.co.kr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